

拷問에 관한 자료

金次雄



朴鍾哲君사건 축소조작의顛末

金 次 雄

(東亞日報社會部記者)



정의구현사제단의 총격발표

지난 5월 18일 저녁 8시반경 서울 명동성당 대성당에서 「5.18光州항쟁희생자가 모셔지기 끝까지 金勝勳선부가 제대 앞에 나와 김자기 밀리는 목소리로 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로 나온 金新부가 「너던전 남영동에서 끔찍한 고문 끝에 목숨을 잃은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은 아직까지도 그 내미 등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가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시두를 매자 미사에 참석했던 2천여 신도들은 무슨 말이 이어질까 하고 이리둥절한 가운데 시신을 제대쪽으로 모았다.

김신부는 더 이상 뜬말을 들이지 않음에 「당국은 철저하게 이 사건을 은폐했고 그 과정 일체도 조작해서 국민을 다시 한번 속였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뒤 「성명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김신부가 읽이내려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는 첫머리부터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박종철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바로 있다」는 엄청난 「폭탄선언」을 시두에 담은 이 사제단의 성명서야말로 「사군고문치사사건」 축소조작의 기전과 파장을 다는 첫 선호탄이었다. 사제단의 성명서는 단순히 「고문치사사건」이란 이름으로 영진상이 알려지지 않은 채 이동속에 묻힌 뻔했던 박군사건을 「고문치사범 축소조작 모의사건」이란 새로운 이름으로만 4개월만에 회생시키면서 이 땅에 정착시키지 않으려고 엄청난 총격과 빈희의 회오리바람을 몰아오게 한 시발이었다.

결국 박군고문치사범 축소조작 모의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새로 공범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이 은폐조작에 직접 개입했던 차안본부대공안부 3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 국무총리, 안기부장, 내무·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안본부장, 리히의 기안책임자 등이 하루아침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또한 이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권력의 도덕성 문제가 새삼제

기됐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은 불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의 억울한 넋이 차마 그대로는 극락왕생할 수가 없다. 자기 각인이 돌아와 음울한 「死者의 증」을 키기라고 밀하기도 했다.

사제단의 성명서가 처음 발표됐을 때 「진범조작」이라는 엄청난 내용 때문에 큰 충격을 던지긴 했으나 시중에 「실마」하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진범」이 따로 있으며 진상이 조작됐다」는 사제단의 주장에 오히려 국민들은 이리둥절했고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이때만 해도 누구도 앞으로 전개될 사태전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언론까지도 긴가민가한 입장에서 사제단의 성명서내용을 1, 2단 짜리 기사로 「축소보도」하고 말았다.

사제단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민밀한 준비와 작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시두니 고문치사범 박군장인 成世雄 신부는 성명서 발표 이전에 기자들과 만나 「신부들이 오늘(5월 18일) 추모미사가 끝난 뒤 「구속도 불사하는」 엄청난 행동을 취할 것이니 잘 지켜보

라고 의미심장한 귀림을 해주었다. 또 성명시를 낭독한 뒤 김신부도 나중에 「성명시」를 낭독한 뒤 구속될 것을 작하였다. 고 퇴이 놓기도 했다. 이런 시정으로 비추어 보아 시제단의 몇몇 신부들은 그동안 조시만을 행성. 끈질기게 사진진상을 추진한 끝에 화신을 갖고 발표하게 됐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고문치사사건 조작내역

시제단 성명시의 주요 내용은 △ 박군을 저지르고 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마로 있다. 진짜 범인은 대공수사 2단 2개 1만 경위 황정웅, 경사 방근곤(潘金坤을 잘못 기재), 경장 이정오(李正鎬를 잘못 기재)다. △ 범인조작의 각본은 경찰에 의해 짜이졌으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범인을 조작, 조한 경위와 강진규정사에 게 덮이려운 것으로 범인조작은 지난 1월 17일 이후 趙·姜 두 경찰관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가운데 이뤄졌다. △ 시제단조작을 담당하고 인출한 나립들은 진내공수사 2단장 진식린(鄭式麟)을 5과장 유정방(劉正防) 5과 2계장 비인

민행을 방조한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이라고 발표리를 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의 이같은 조작적인 처반응은 당시로서는 그런대로 실득력을 가진 듯 싶었다. 특히 「조정위와 강진규정사」 고문치사사건으로 범인조작의 증거를 반박할 자유를 받는다는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런 죄를 스스로 뒤집어 썼겠느냐고 반문한 대목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따라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제단의 폭로에 오히려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시제단의 성명시가 나온 지 꼭 3일째가 되는 21일 오후 6시경 서울지검의 김작스런 진상 발표로 세상은 깜짝놀라 반박 뒤집어지고 말았다.

서울지검, 여론의 화되자 제수사

鄭鉢水 서울지검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진히 사죄에도 고 없이 검찰기자 석에 나타나 「지난 1월 17일, 시제단 박종철군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기 소에 있는 趙漢慶(41)와 姜鎭圭

태정, 홍승성(경감) 등이다. △ 특히 유정방(경정)은 박군사건 진상은 폐와 사후처리를 지휘한 장본인이며 현재에도 각본의 집행을 지휘담당하고 있다. △ 김찰은 이같은 사건조작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등이다. 성명시는 또 △ 사건조작을 끝까지 원천비리로 관찰하기 위하여 기역의 금품을 조경위와 경정사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감옥에 있는 본인들에게는 월급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 나오면 복적이 보장된다는 니하며 무마·회유 하고 가족들을 감시미행하고 있다. △ 구속된 조·강에 대한 격리와 차단, 변호인과 가족접견의 제한과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명서가 이처럼 구체적이고 내용을 지시하면서도 조작 그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 최초로 박군의 사체를 본 의사 吳演相씨의 증언 △ 新民黨의 진상보고서 △ 「東亞日報」 등의 신문보도내용만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일견 성명시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나 그 내용의 근거가 희박한 듯한 느낌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

경사(29) 외에도 黃正雄(41)·현정부(경정)·정신경(현정)·李正鎬(44)·현시울(관악)·정찰시(근무)·潘金坤(경정) 등 3명이 고문행위에 함께 가담했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고문치사)로 고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鄭지검장의 이같은 「진격발표」는 3일전 사제단이 성명시를 통해 「진짜 범인」으로 지목했던 黃정위, 반이(경정) 등 3명과 일치해 결국 김찰추이사제단의 성명시내용이 사실임을 추인한 것이 됐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날 발표로 4개월전 박군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경찰이 당초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며 티무니없는 사망경위를 밝혀 고문치사 자체를 「은폐」하려 했던 사실까지 연상돼 「共犯 5명의 범인축소조작」이라는 김찰발표까지도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다시 말해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검찰의 발표는 그것으로 진상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고만 것이었다.

특히 시제단의 성명시가 「진범」으로 밝힌 3명의 경찰관중 潘金坤(경정)이 「방근곤(경사)」로, 李正鎬(경정)이 「이정오」로 각각 이름과 계급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했다. 사제단의 성명시가 발표되자 국민들의 시선은 김찰과 경찰에 쏠렸고 통일민주당은 사제단의 성명시가 진범조작을 주장한 사실을 중시, 당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찰의 첫 반응은 박군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安衛(경정)로부터 나왔다. 安(경정)은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은 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공판이 지연되고 있어 그런 유언비어가 생긴 것 같은데 곧 공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최안본부 관계자도 20일 「사제단의 성명서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조정위나 강경사가 진범이 아니라면 고문치사죄를 뒤집어쓰고 중벌을 받게 되는데 누가 그런 죽을 죄를 뒤집어 쓰겠는가」고 반문하고 나섰다. 「김찰은 또 이날 「조정위와 강경사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제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날 정시울지검장의 발표내용을 살펴보자.

△ 검찰은 그동안 관계수사기록을 최종 검토하는 등 공판준비를 해오던중 「5월 초 순경」 구속수감중인 피고인 2명이 교도관을 통해 당당히 고백한 「진상」을 받고 「저, 난 주 초」 「민단한 바 조정위와 강경사는 심정변화를 일으켜 종전의 진술내용을 반박, 자신들 2명 외에도 3명이 가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을 했다.

△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중인 피의자 2명의 진술을 토대로 박군을 조사할 때 지인근무한 것으로 밝혀진 황정웅(경위, 반근공(경정), 이정호(경정) 등 3명의 신빙을 확보, 임중수(지인) 결과 위 3명도 박군에 대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했음.

△ 이들 피의자들이 당초에 조한 경, 강진규 2명만 가혹행위자로 주장해온 이유는 박군사망의 불상사가 발생하자마자 즉, 시, 이들 5명 간에 수사반장으로 시, 현장을 지휘해 이차피 책임을 지게 될 조한경과 피의자중 가장 나이가 어린 강진규 등

2명만이 책임을 지고 다른 3명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자고 약속했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후 조와 강은 구금기간중 어리가지 민민을 하다가 공판을 앞두고 자신들이 진지인 책임을 지고 중형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상을 밝히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방직은 필자).

서울지검은 또 이 발표에서 이번 수사에 따라 밝혀진 고문치사 진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87년 1월 14일 오전 8시경 조, 황, 반, 이 등 4명이 비군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청사 제9호실로 동행.

△ 조, 이 등이 오전 10시 30분까지 간단한 인정신문 및 이치서사 제공, 휴식을 취하게 했음.

△ 조, 강, 이 등이 박군에 대한 조사반원으로 편성돼 오전 10시반경부터 박군의 불변시위가 담회의와 수배된 朴鍾謨군의 소재 등에 관하여 심문했으나 박군이 순순히 응하지 않고 완강히 반항함.

△ 조경위는 강경사로 하이급 환경 응용반공을 불러오게 해, 조의 지시에 따라 이정호가 육조에 불을 채우고

박군을 육조 앞으로 끌고간 뒤 황은 박군의 왼쪽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끼안고 반은 우측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끼안아 잡고 이정호는 뒤에서 밀고 강진규는 육조에서 끌어당기면서 박군의 머리를 잡고 2회에 걸쳐 1분 내지 2분 정도로 물속에 밀어 넣었음.

검찰, 「범인인」 5명뿐 「발표

정 서울지검장은 발표문을 읽고 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공범 3명의 추가구속은 지난 18일 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애써 강조하고 "디 이상의 배후는 없으며 박군사건은 이로써 수사종결"이라고 강조했다.

정지검장은 또 "수사착수후(5월 초순경) 증거를 수집해오다 지난 19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신병을 확보, 3일 동안의 정분교도소 부속 건물에서 보안수사를 했다"고 밝히고 "범인 5

명이 자기들끼리만 말을 맞춰 상급자는 물론 다른 동료경찰관들조차 공범은 폐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검찰의 발표문에서 필자가 방질을 친 사형들은 후에 거짓입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랬든 검찰의 발표가 있자 국민들은 "그럴 수가 있을 법했다. 국민들은 또 '검찰의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진상이 밝혀졌다고 믿기 어렵다'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사건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은폐 조작관련자를 모두 가리내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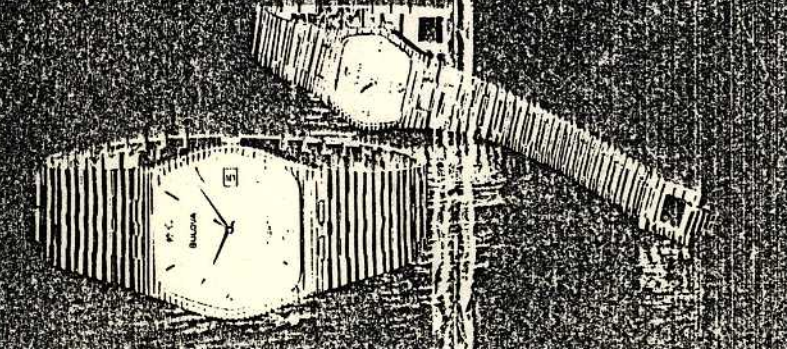
사실 서울지검의 발표 자체가 국민들에게 또다른 의구심을 강하게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과연 공범이 3명이냐 더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겠느냐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국민들은 검찰이 1월 19일 경찰로부터 비군사건을 송치받은 뒤 현장검증을 하면서도 두 고문 경찰관을 완전히 지지 않은 채 이른바 '일몰없는 현정검정'을 하는 등 상식에 이긋는 소홀한 수사를 펼친, 당초부터 수사

BULOVA
대사시계(주)
세계의 시간대



침묵 속에서도 시간은 흐른다
부호바



전국대리점 A/V 센터 서울 736-2471-2 부산 23-2165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44-9 (부호바 B/D) FAX: (02) 596-7619/CABLE ADD: "DAISUNICO" SEOUL
경기 805-5862 / 대구 45-1797 전북 완주 72-3977 TEL: 대내부 (02) 595-6211 / TELEX: K 29333 DAISUH
전남 (광주) 33-27-광안(서울) 324-7686 대진 46-3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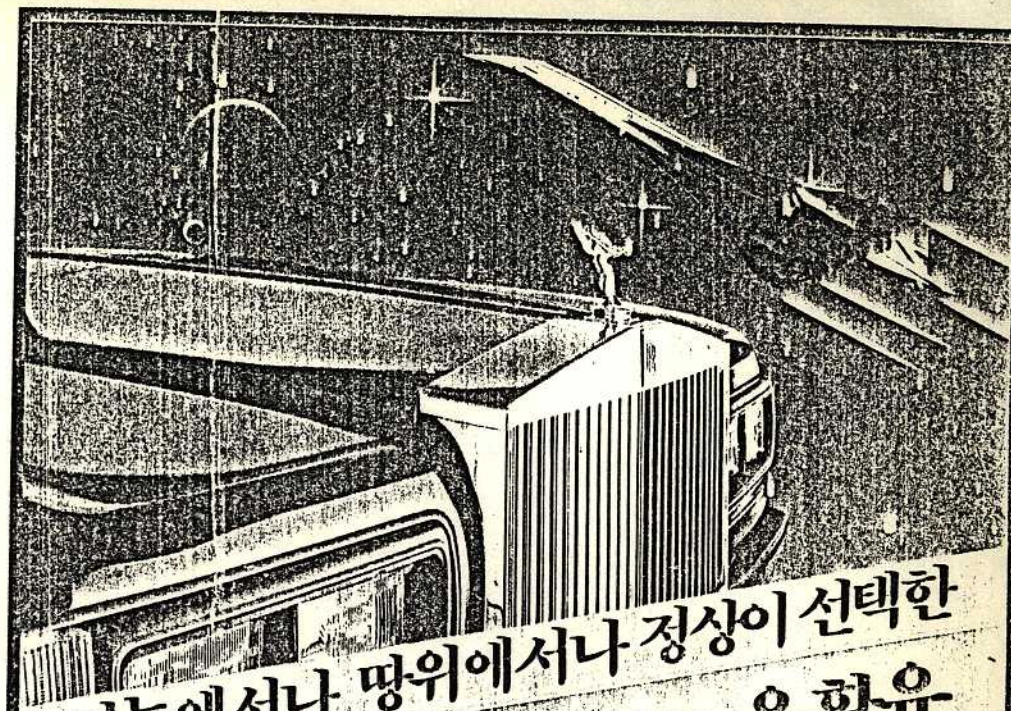
동아일보 5/23
김정필 기자

주체가 검찰이 되지 못하고 경찰 자체 조사만에 수사가 맡겨진 점,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20일 동안의 수사가 가능한데도 1월19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다른 중요사건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짧게 단 5일 동안만 수사를 벌이고 24일 기소와 함께 손을 떼버린 점 등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하며 지적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의혹과 의문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지검의 공범 3명 추가 구속발표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 5월22일자 「東亞日報」가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급변하게 된다.

「동아일보」는 1면 10기사로 「관련上司 모임에서 犯人 축소조작 모의」란 제목으로 「朴근고문처사범 축소조작극에는 「배후」가 있다. 그 배후자는 당시 대공수사 2단 5과장 劉井邦정장이며 이 조작에는 치안본부 5차장 朴處源치안장, 대공수사 2단 5과 2과장 朴元澤정장이 있으며 이들은 범인 5명과 짜고 고문처사범 축소조작모의에 직접 개입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대담하게 폭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의 이 특종은 정확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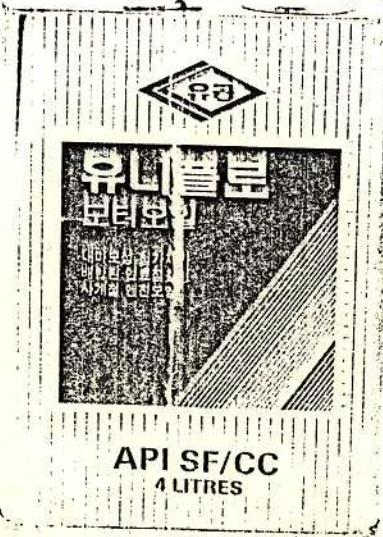
하늘에서나 땅위에서나 정상이 선택한 유공이쏘 윤활유

세계정상급 이쏘 윤활유가 고성능 윤활유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날으는 하늘의 궁전 광고드 — 영국이 만든 세계정상급 승용차 롤스로이스 — 그명성에 어울리는 뛰어난 품질의 고성능 이쏘 윤활유 정상과 정상이 만났는데 더욱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위에서나 정상이 선택한 이쏘 윤활유. 이쏘를 선택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SF급 엔진오일 — 유니플로 (Uniflo)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용 엔진오일은 SA 급에서부터 SF 급까지 생산되고 있는데, SF 급이 가장 좋습니다. 세계 80여개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자동차용 최고급엔진오일 유니플로는 바로 SF 급입니다.



유공 주식회사 유공 (Esso)

본사: 783-8251 (교현2551) ~ 7959 / 서울지사: 795-0101 / 경기지사 (인천): 73-4991 / 강원지사 (원주): 43-0561 / 충청지사 (대전): 253-9421 / 호남지사 (광주): 365-2341 / 경북지사 (대구): 756-7458 / 부산지사: 865-5051 / 경남지사: 2-2450 / 전주사무소: 74-2520 / 울산사무소: 75-9686 / 청주사무소: 52-7871

보물 토대로 한 기자의 추적조사로도 된 것으로 하루 전 서울지검장이 밝힌 「더 이상의 배후나 공범이 없다」는 발표를 뒤엎고 박근사건을 또 한 단계 확대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로써 「박근사건」은 지난 1월 고문처사범 3명이라는 제 1차에서 범인 3명 월만에 「공범 3명 구속과 축소조작」이란 제 2차로 들어섰다. 다시 하루 만에 「축소조작모의에 상급자 개입」이란 제 3차로 전격 돌입하는 국면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검찰의 공범 3명 구속발표로 드러난 범인들의 축소조작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데 이어 그 같은 축소조작모의에 범인들의 정상급자들인 치안본부 5차장 박치원치안장감을 비롯한 대공본부 3명이 처음부터 개입해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경악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고문처사범의 축소조작모의에 치안본부 고위간부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공권력의 도덕성까지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비군사건의 새로운 전거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앞

서울지검은 공범 3명 추가 구속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두가지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이 하루만에 드러난 게 된 것이다.

김철의 두가지 중대한 거짓말은 △ 고문처사범 축소조작은 단순히 범인 5명끼리만 저고한 것으로 그 해 후가 없다고 밝힌 점 △ 김철이 박근사건의 공범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 5월 초순경이라고 못박은 점이다.

「배후가 없다」는 검찰발표는 「동아일보」의 「정상급자」 개입 보도로 단 하루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 김철이 범인 축소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이 5월 초순이 아니라 3개월 전인 지난 2월 초순이란 사실도 검찰발표 이틀만인 5월23일자 「동아일보」가 「법무부·검찰 고위관계자 식탁선조」로써 김철이 거짓발표를 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정의구현사재단 2차 년별

한편 民主黨과 정부 관계부처는 김철의 공범 3명 구속발표가 있는 다음

했다. 대채위는 이어 이 사건의 은폐와 조작행위는 박군의 고문치사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범죄라고 진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관련자 전원 처벌 △국회의 특별조사단 구성과 국정조사권 발동 △헌정권 퇴진 △고문추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투쟁 등 7개항을 촉구했다.

국민들도 검찰이 당초 박군공판추경창로부터 송치받고도 사건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가 사제단의 성명이 나오지 3일만에 범인속소조직 사실을 발표한 데 대해 처음부터의 구성을 풀었다가, 치안본부 대공안부들의 조작모의 개입으로 사건이 확대되자 검찰과 검찰이 자체조사와 수사에서 진상을 물렸을 리가 없다. 미 배후를 철저히 밝히 관련자 전원을 처단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불을 풀어주는 길이며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 보여 준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동아일보」는 5월 23일자 신문에서 「법무부 검찰고위관계자들이 사법권에 이미 박군사건 범인속소는 사정을 알고도 수사지휘권 발동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잇달아 폭로하고 나섰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김철이 조경위와 강경사 이외에 박군고문치사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조경위 등이 구속기소(1월 24일)된 지 2주일 정도가 지난 2월 초순경이며 △법무부 및 검찰의 고위관계자 등도 조경위 등이 과소로 면죄온 가족들까지 회개하는 보고반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 공판기억을 늦추며 대책을 논의해 오다가 사제단이 성명서를 발표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공범 3명을 추가 구속하기로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검찰, 기자협회하에 현장검증

대한민립은 23일 박군사건은 왜 조작진정조사단을 발족하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이같은 「수사지휘권 포기」를 비난하고 이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정조사단은 柳鉉錫인권위원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趙準熙 姜錫濬 洪性宇 黃仁喆 河英喆 趙英來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이날은 오전 임시경무회의를 열고 박군 고문진상 속소조

작사건에 대한 특별성명을 채택, 대동령의 사과와 내각총사퇴를 기류 요구하고 나섰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궁지에 몰린 것은 박군고문치사의 장본인 격인 검찰 보다는 오히려 검찰쪽이었다. 마침내 검찰은 5월 23일 박군고문치사 사건을 고문치사범들이 저지른 범죄는 죄악의 극치이며 이르기까지의 진과정에 대해 인정점으로 돌아가 전면 재수사를 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쫓기는 국민들의 눈 초리는 싸늘하기만 했다. 많은 시민들이 신문사로 진화를 질이 「검찰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이야. 검찰도 경찰과 똑같다」는 등 검찰을 비난하고 검찰수사에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내 보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지검은 23일 밤 9시경 고문경찰관 5명의 상급자인 치안본부 5차장 박치원치안감, 당시 대공수사 2단장 田錫麟경무관, 대공수사 2단 5과장 유정방경정, 2단 5과 2과장 박원태경정, 5과 1과장 홍승상경감 등 5명을 서울을 올림피 이호팅로 소환, 수사에 불이갔다.

서울지검이 5월 21일 오후 공범 3

대채위의
5월 22일 오전 모치에서 김규비

남인 5월 22일 오전 모치에서 김규비공식 당정대채회의를 열었다. 이 당정회의에서는 범인 3명 추가 구속 발표에 따른 대책과 향후 정치적인 전망 등을 논의하면서 일단 박군사건은 검찰이 공범 3명이 더 있음을 밝혀낸 만큼 국민들은 납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이나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동아일보」의 폭로로 상황이 급변하자 민정당과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대채회의를 긴급소집했다. 동일사건으로 오진과 오후 두 차례나 당정대채회의를 소집한 것도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오진의 대채회의가 사건의 마무리를 예상하고 그런대로 밝은 분위기였으나 이날 오후에 개최된 긴급당정회의에서는 「동아일보」의 폭로기사 내용과 이같은 폭로기사로 인해 일어날 엄청난 국민이론 등을 감안, 오진의 당정회의 결론을 뒤엎고 박치안감 등 상급간부들의 조작모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말해주듯 박군고문치사범 속소조직모의사건은 이때부터 검찰과 언론의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검찰수사가 언론에 등을 밀려 가지 못해 수사를 확대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결국 박군사건의 제3막은 시종 검찰이 언론에 이끌려가며 언론·보도내용을 뒤따라 확인해 주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였다.

치안본부 대공안부들의 조작모의 개입이 폭로되자 사제단은 「범행은 폐기도의 진모를 밝혀라」라는 제복의 성명서를 또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국민을 우롱해온 이 임청남 범행은 왜 조작기도의 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양심의 이름으로 임청남의 형을 △우리는 검찰이 늦어도 지난 2월 2일 하순경까지는 사건진상을 알고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더 철저하게도 범행은 폐기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종철군에 대한 고문실인의 범행과 사체치리과정에 관한 의혹을 비롯해 범행 진상의

은폐를 위한 조직적 음모의 진모가 두철저히 세롭게 밝혀져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엄중문책해야 한다 △이 조사는 검찰에만 맡겨 놓을 수 없으므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대한 변호사협회가 즉각 조사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는 범행의 이같은 조사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권양에 대한 성고문사건, 김근태체질기 고문사건 등 지금까지 발표한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이번 일을 계기로 깨끗이 불식되도록 재조사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 요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 金祥根목사)도 22일 오후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채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검찰의 발표는 그동안은 패배한 사건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채위는 또 그동안 제기돼 왔던 진기 고문에 대한 의혹 등 사건의 모든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요구

명을 전격적으로 추가 구속하면서 '더 이상의 수사 확대는 없다. 조정위의 지시에 따라 부하경찰관 4명이 범인은 패 및 조각을 모으겠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날에도 계속 수사종결 방침을 천명하여 구속자의 공소유지 수사에만 전력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생각하면 검찰이 박치안감 등 3명에 대해 본격수사에 착수한 것은 대단한 변화였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태도의 변화는 신문외 잇단 진상 폭로와 이에 따른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 분명했다.

서울지검은 박치안감 등에 대한 범인 축소 조작모의 개입여부를 수사하면서 24일 오전 7시 20분부터 40분동안 치안본부대공수사단본실(서울 龍山구 葛月동 소재·속칭 남영동 본실)에서 비군고문처사시간에 대한 현장진중을 실시했다. 4개월 전 조경위와 강경사를 분할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가졌던 이른바 '얼굴없는 현장진중'과는 달리 이번에는 범조를 출입하는 2명의 풀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인 5명이 모두 직접 참가해 범인 '진짜 현장진중'이었다.

한정진중

한정진중

사이 강경사가 육조 안에 들어가 머리를 풀이당기며 물고문을 하던 중 목젓 부분이 육조턱에 눌려져 전신사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날 현장진중에서는 박군의 처벌적인 사인인 물고문 장면만 집중적으로 개연성을 본 나쁜의 풀이(남영동 55호)가 아니라 제야쪽에서 진기고문의 흔치이라보 주장해 왔던 손가락 사이의 출혈빈점 등이 생긴 과정에 대한 재인은 끝내 실시되지 않았다.

또 그동안 민회온 가족들에게 고통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사는 이날 현장진중에서 사소한 동작에도가끔 의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특히 물고문 장면에서 강경사는 '내가 육조 밖에 나와 있는 장면도 찍어달라'고 검사에게 요청, 반, 황, 이경상 등 셋이지만 물고문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검사는 강경사의 요청을 받아주면서도 '1차, 2차로 물고문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T. 박씨는 이따금씩의 증거를 지적하는 강경사에게 '결정적인 행위를 인정하면서 사소한 동작을 기리고 될

한정진중은 서울지검 형사 2부 申昌彦 金東燮부장검사의 지휘로 진행됐는데 박군이 지난 1월 14일 아침 8시 10분경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건물 5층 8호실에 언행했다가 나중에 같은 층 9호실로 옮겨져 오전 11시 20분경 물고문 끝에 숨질 때까지의 중요 장면만 재연됐다.

경찰고위간부 개입여부 조사

이미 구속기소된 조경위와 강경사, 그리고 추가구속된 황정웅경위 반급로 체념한 듯 검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 당시의 행위를 순순히 재연했다. 현장에는 풀기자 2명에게만 임회가 허용됐고 사진기자들은 들이가지 못했다. 김철수사팀의 촬영기사가 범행재연장면을 일일이 촬영했다.

한정진중은 고문경찰관들이 고문가담시 실을 이미 시인했기 때문인지 재연기부나 이의 제기를 별로 하지 않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휘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중요장면만을 재연시켜 사진촬영을 했는데 풀기자로서 풀기자가 이 장면들을 목격한 '동이일

미지느냐'는 투로 반장을 주기도 했다. 또 가족들에게 고문현장에 없었다면서 '고문현장 부재'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경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문행위를 지휘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증거는 불충분하고 고문이 된요한 부하직원들을 불러오고 고문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재연해 이 사건의 주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했다.

검찰의 이날 한정진중은 5인조 고문경찰관들의 범행재연에 초점을 맞춰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확보만 했을 뿐 정작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던 진기고문 등의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지는 않았다. 이때쯤 국민들은 물고문과 징보다는 치안본부 상급자들의 범인 축소조작모의 개입 여부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오락가락수사'로 차츰 국민들의 기대에 이긋나기 시작했다. 서울지검측은 치안본부차장 박치안감 등 5명을 범인 축소조작모의에 가담한 사실에

보' 범조출입 黃編澤 기자는 '마치 설명없이 나열된 스텝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술회했다.

범인들은 가끔 한정진중을 하면서 침묵을 깨고 시로 기억을 되살리며 동료가 서 있던 위치나 동작을 바로 잡아 주기도 했다. 또 이들은 조경위를 부를 때는 옛상관 명칭 그대로 '박장님'이라고 불렀고 한정진중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대공수사단간부들과 눈이 마주치자 경황중에도 인사를 꾸벅 꾸벅 하기도 했다.

또 한정진중을 할 때 박종철군의 대역을 미처 구하지 못해 잠시 혼란을 겪다가 고문경찰관들을 호송해온 의정부교도소의 교도관 중 한명을 급히 대역으로 만들어 진중을 하기도 했다.

이날 한정진중으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은 △박군에 대한 물고문이 당초 진중이 밝힌 '두차례 물고문'보다 횟수가 많았다는 것 △박군은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물고문을 당했다는 점 △치명적인 사인은 고문경찰관 황정위와 반경장이 박군의 양기드랑이를 쥐고 이경장이 뒤에서 박군의 바둥기리는 두다리를 들이올리고 있는

대해 왕강하게 부인하자 25일 오후 5시 25분경 이들 모두를 풀이주고 말았다.

검찰은 23일 방부터 48시간 동안 이들 상급자들에 대한 수사를 했으나 유정방정만 범인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을 뿐 다른 4명으로는 '조경위와 강경사가 시간을 주도적으로 축소조작했으며 그들의 보고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진술, 범인조작개입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조경위와 강경사 등 고문경찰관들을 조사했으나 이들은 '사진발생 당시 박군의 사인이 심장마비로 처리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징계처분만 받을 것으로 생각해 고문에 가담한 5명끼리만 조작모의를 했다'고 진술하며 상급자들의 개입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치안감 등 5명을 풀이준 뒤 기자들에게 '경찰조직의 특성상 은폐사실을 직속상관들이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본다'면서 '일단 대공간부 5명을 키가시킨 뒤 유정정과 반경정 등 2명은 다시 검찰

청사로 출석시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씨가 어떻게 밖에 부닥치면 시주출하게 된 것은 당사자들이 범인 축소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부 인하는 데다 조경위 등 고문경찰관들 까지도 상급자들의 개입을 부인하는 데다가 메모나 문서 등의 뚜렷한 개관 지 증거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

말하자면 김철의 입장은 「조직의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한 김철관개자는 「이번 수사의 이리 옴은 「발로만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사후에 조작사실을 알고 이들을 폐하기 위해 지금 지행위를 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극적으로 무인 하는 정도에 그쳤다. 「민치법이 관련한 데」고 민이 놓기도 했다.

인론, 시건비추 추적보도

그러나 김철수가 바에 부닥치 일 단 주출하자 국민들은 김철의 「수사 상 어려움」을 이해하리 하기도 하는 김철수사의 제지리 김철을 「수시종

렬」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였다.

시중에서는 「박치안감 등이 20, 30 년씩이나 대공분야에서 일해온 수사 배태량들이라 젊은 김사들이 수사에 이를 먹고 있다. 「서울지검도 진차 부터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자를 하지 않고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대공간부들의 축소조직개입사실을 제대로 캐낼 수 있겠는가」는 등의 말까지 나돌았다.

인론에서도 서울지검이 당초 박군 사전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도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 했던 만큼 수사 주체를 대검으로 넘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해 서울지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됐다.

김철의 수사가 바에 부닥친 듯 벌다 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신문들은 박치 안감 등 대공 간부들이 범인 축소조직 모의에 가입한 것으로 믿게 해주는 갖 가지 「증기」들과 「단서」들을 추적 조 사,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추적조사 보도는 전례를 찾 아보기 힘들 만큼 자극적이고 구체적 인 것들이어서 인론보도가 오히려 김 철수사를 앞질러가며 김철수사들이 끌이 가는 듯했다.

실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자 형님이 「10일 정도만 시간을 달라」며 심경변화를 일으키는 듯했는데 바로 이날 밤 이 감됐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누구의 지시로, 왜 갑자기 조경위와 강경사를 이감했는지, 그리고 이같은 이감조치는 김철과 범우부 당국야 범 인 축소조직내용을 사정에 알고 가족 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된다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아닌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회동행과 감시 2 가족들에게 첫 번째가 허용된 것은 지난 2월 7일이며 이때부터 조경위 가족에게는 대공 수사 2단의 추모경위가, 강경사 가족 들에게는 출모경위가 출판 민회에 임 회하며 감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들 가족의 민회에는 추가 구속 된 황경위 반, 이경장 등 3명 중 한 명씩이 빈감아 민회 장소에 나타나면 허를 지키보았다는 것이다. 또 치안 본부 대공형사들이 임회하지 않을 경 우 가족들에게 민회까지 허용되지 않았 다는 사실도 가족들의 증언으로 드러 났다.

민회제한조치 2 조경위와 강경사

에 대한 민회는 일반인들의 민회가 금 지된 토요일 오후에만 「특별민회」로 만 허용됐고 개별민회는 철저히 금지 돼 온 사실도 밝혀졌다. 신문들은 무 손 이유로, 또 누구의 지시로 이같은 민회제한조치가 취해졌는지에 이문을 제기하며 「담당직사가 양쪽부리」 범인 축소조직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 하고 나섰다.

이런저런 임금된 통장 2 조경위의 부인 俞慶順씨는 지난 4월 초 조경위 와 강경사를 민회온 치안본부 5 차장 박치안감이 현금 1 억원씩이 각각 임 금된 두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여 쥐 화인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俞부인은 「남편과의 민회 때 남편 이 5 차장이 약속한 두가지 중 한가 지가 이뤄졌다. 다른 한가지도 곧 이뤄질 것 같다」고 말해 그동안 5 차장 실에서 논의돼온 매월 50 만원씩의 「월급」 이외에 「목돈」이 마련된 것으 로 알아채고 금액을 묻자 남편이 손가락으로 「1 억원」이란 수자를 자신의 무릎위에 썼다」고 밝혔다.

이 「1 억원 통장」 문제는 5 차장 박

신문들이 가족 변호사 등 사건관계 자들을 통해 밝혀낸 사실들은 하나 같 이 박치안감 등 대공간부들이 범인 조 작모의에 가입했다는 혐의를 구체적 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들이었다.

민지 조경위와 강경사의 가족들과 변호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 은 다음과 같다.

① 허박회유 2 조, 강 두 고문경찰관 들은 그동안 치안본부 대공간부들로 부터 갖가지 허박과 회유를 받아 있 다. 조경위의 동생 趙漢九씨는 지난 3월 9일 형을 면회했을 때 조경위가 「김사에게 조작사실을 폭로한 뒤 경 찰로부터 「죽이겠다」는 허박을 당하 고 있다. 빨리 변호사를 데라」고 말했 다고 밝혔다.

또 조경위는 지난 3월 14일 가족민 회 때 「끝까지 심자가를 질 경우 명보 시 등으로 형기를 단축시켜 주고 가족 들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준다는 등 4 가지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말했다는 것.

② 김작스린 이감 2 조경위는 지난 3월 7일 감지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동생 한구 씨는 「3월 7일 민회 때 형님에게 「진

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동 아일보」는 이 사실을 처음 기사로 폭 로하고 나서면서 박치안감이 무손 이 유로, 또 어떤 조건으로 현금 1 억원 씩을 조경위와 강경사 명의의 예금했 는지를 김철이 친영히 밝혀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2 억원이란 금액의 출처 가 이던지, 치안본부 예실에서 인출 됐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 했다.

③ 위로금지금 2 조경위의 구인 김씨 는 남편이 구속된 뒤부터 지급까지 위 로금 1 천만원, 생활비로 2 월에 30 만원, 3월부터 1 배만원씩 5 차례 (4월에는 두차례 1 배만원)에 걸쳐 3 배 30 만원, 전세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 천 5 배만원, 姜政昌 전치안본 부장으로부터 위로금으로 3 배만원 등 모두 3 천 1 배 30 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경사 가족에게도 3 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전달됐음이 확인됐다.

④ 가족들의 사생활은 김철수사 1 가족들에 따르면 조경위와 강경사가 구속된 뒤 박치안감과 유경정, 박경 정 등 대공간부들은 치안본부 5 차장실

로 조, 강 두 경찰관의 가족들을 자주 불러들이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가족들 에게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말 것 등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대폭 개각의 파문

이상에서 열거한 사실들은 그 자체 만으로도 박치안감 등 대공간부들의 비인축소조작 모의에 개입했다는 혐 의를 충분히 하는 것들이었다.

신문들은 이같은 새로운 사실들을 추적조사, 보도하면서 박치안감과 유, 박정정 등 3명이 당초 경찰 자체 조사가 시작됐던 지난 1월 17일 밤 서울 新南浦 소재 특수수사대로 찾아가 조경위와 강경사를 「실드」한 뒤에야 조, 강 두명이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들어 이들 대공간부들이 당시 어떻게 무슨 말로 조, 강 두명을 「실 드」했는지, 또 조경위와 강경사가 이 민 경위와 약속으로 「동민의 비행」으 로 범행사실을 뒤집어 쓰기로 했는지 를 김철이 명백히 밝히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들은 또 박군고문처사사건이 치유발생했을 때 사건의 진상이 경찰

내부의 어느 신까지 보고됐는지, 박 치안감과 유, 박정정이 사건발생 직 후 인제 진상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김철이 명백히 밝히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런 지적과 함께 대공경찰의 상하 관계로 보나 박군같은 젊은 대학생에 대한 불고문이 대공형사 2명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공형사들 사이에는 「상식」처럼 돼 있는 만큼 경 위장은 유, 박정정이 조, 강 두 경찰 관만으로도 불고문을 하다가 사고를 냈 다고 보고했다. 치다라도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일임을 지적 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함께 과잉 검찰 추이 인제 조경위와 강경사 이외에 공 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 는지를 김철 스스로가 명백히 밝혀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문방송들이 이같은 새로운 사실 들과 그에 따르는 의문점을 계속 폭로 하고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시민들은 김철 수사결과와는 관계없이 박치안감 등 대공간부들이 비인축소조작 모의에 깊게 개입돼 있음을 누구나가 믿게 했

때 대단한 정치적 빈화조짐을 의미하 는 것이었다. 특히 내년 2월 정권이 양을 앞두고 후계자문제로 정가에 두 사람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이 개각은 여권 내의 실세의 향방을 드러내 보여준다 는 점에서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 또한 컸다.

대검에서 사건 인수 재수사

한편 개각으로 불리나게 된 정호용 내부부장관은 이날 장관직을 떠나면 시 기자들에게 「인론당국론」을 피력, 자신을 끌기도 했다. 정장관은 이 임 시을 하기 직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임소감 등을 밝히는 자리에서 박군사 건에 대한 인론의 보도내용과 태도를 두고

「인론이」 「사실무근한 내용을 근거 도 없이 마구 썰대는 바람에 국민이 어느 것이 숫까마귀인지 암까마귀 인지를 모르게 됐다. 이번 사태는 인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박군사건에 정치적 책 임을 지고 이렇게 개각을 했지 않았느냐. 인론이 나라 망치는 것이 아

대검에서

용해진 만큼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개각의 무명이 열리자 그 폭이 예상보다는 큰 데다 경질된 자리가 정부의 핵심자료들이란 점에서 놀라기도 했다. 일부에서 는 이 개각에서 국무총리와 안기부장 이 바뀌는 것을 보고 향후 김철의 구 도가 바뀌게 됐다 고 평하면서 정부가 민심수습을 하기 위해 취한 정치적 안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폭 개각은 일요일인 5월 24일 핵심자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대검총대회의**에서 鄭鎬溶 내부부 장관이 민심수습을 위해서는 자신을 비롯한 관계자료를 모두 시표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같은 의견이 고위 층에 받아들여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 지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고위층의 측근이 사 재단에 재보됐던 것과 같은 박군사건 의 자세한 진상을 재보받고는 이를 고 위층에 낱낱이 보고함으로써 「대폭 개 각」을 결심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돌 기도 했다.

어쨌든 노신영 국무총리와 장세동안 기부장 등의 퇴진은 그동안 두 사람이 차지해왔던 정치적 비중을 감안해 불

인론보도로 국민들은 대공간부들의 비인축소조작 모의개입 혐의를 낱낱이 알고 믿고 있는 데도 김철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우스운 일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모 두 알고 짐작하고 있는 사실들을 김철 이 확인하지 못한 채 쟁전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때 조경위가 김철의 「1억 원 통장」 등에 대한 조사에 일체 임을 열 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 김철수사가 진히 진전이 없자 피 마히비렸고 이 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김철 내부에서도 김 철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기도 했다.

이런 즈음 정부의 갑작스런 개각 발 표가 터져나왔다. 5월 26일 오전 단 행된 이 개각으로 盧信永 국무총리, 張世東 안기부장 鄭鎬溶 내부 金聖基 법무 徐東拂 검찰총장 등이 물러났다. 또 후속인사로 李永根 치안본부장과 李海龍 안기부 제1차장이 물러났고 이들이 김철 수뇌부에 대한 대폭 개편이 뒤따랐다.

국민들은 비군사건으로 민심이 불

너지 모르겠다」 고 지적적으로 말했다.

정장관은 또 「기자들이 정신을 차 리야 된다」고 말하고 「대학생들이 공 부는 하지 않고 데모만 하면 인론이 앞장서서 매리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鄭장관의 이같은 내인론 발언을 들 은 기자들중 일부는 정장관의 솔직한 성품으로 보아 정장관의 발언내용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정부측의 인론관과 박군사건과 관련한 인론보 도를 보는 정부측 시각을 전달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기도 했다.

정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있기 이를 진 모라료가 인론사 간부들을 만나 「신문보도 내용중 틀린 것이 많다. 현 재까지의 수사결과 박치안감 등 상급 자들의 비인축소 조작 모의개입은 사 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해 박군사건에 대한 인론의 추적조사보 도를 은근히 비난하기도 했다.

이즈음 개각으로 수뇌부가 바뀐 점 창은 박군사건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신임 李種南 검찰총 장은 5월 27일 오후 3시경 취임식을 마친 직후 정구영 서울지검장과 韓永

逸品 요리

—향긋한 개살맛이 일품인 오양맛살—
고단백 지칼 조리 식품으로 인제이 새나인가 맛살의 제맛을 추구하는 좋은 제품입니다.



오양맛살



● 본 사 : 서울시 중구 명로171 76-3
732-6500-9
● 판매부 : (시) 1718 5 15-71(부산) 242-8010

명의 상급경찰관부들에게 형이상 범인도피죄를 적용했으며 이미 추가 구속된 황정웅경위 등 고부가단경찰관 3명은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황정웅경위 등 5명, 박치안감 사건에 3차례에 걸쳐 구속된 경찰관은 고부가 단사가 경관 5명, 범인축소는 폐조적조의 권린 3명 등 8명으로 늘어났다.

10여명이 조정위 등을 찾아가 회의를 했으며 박치안감도 이들 2명을 찾아가 두사람이 체임지고 나가라고 설득했으며 ▲ 1월 19일 오후에는 박치안감 등 3명은 또 범인축소조 작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 지난 2월 19일 유정정 등 6명이 교도소로 조정위 등을 민회갔을 때 조정위가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하자 박치안감이 지난 3월 8일 교도소로 다시 찾아가 조용히 있으라고 설득했으며 ▲ 3월 9일에는 박치안감이 가족들을 만나 조정위와 강경사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고 ▲ 3월 19일에는 빈

한부대장

대검대검장

錫중앙수사부장 등 대검장부들을 긴급소집, 서울지검이 맡아온 박군사건 수사를 대검중앙수사부가 맡도록 지시했다.

수사 주체가 서울지검에서 대검으로 바뀌게 된 것은 선임 추경철총장이 취임 하루 전인 26일 三浦洞검찰청사 별관에서 정시울지검장으로 부터 사전 전모를 브리핑받은 뒤 정부고위층으로부터 명백한 사건진상규명과 관련된 자엄벌에 대한 지시를 받고 丁海昌신임법무장관과의 회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주체가 대검으로 넘어가면서 박군사건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대한 대검관계자는 '총리가 바뀌고 안기부장과 내부 법무장관 등 권력부처의 장들이 모두 물러나게 되면 판에 경찰장부 몇명을 바꿀게가 아니다'고 말해 수사화내의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또 한영석대검중앙수사부장은 박군사건을 서울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이는 사실상 이번 수사를 맡아온 서울지검에 대한 監査의 성격을 지닌다'고 말해 지금까지 박군사건을 다뤄온 서울지검의 수사한 개성을 간직

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부장은 또 '대검은 합정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진실을 밝힌다는 방침 아래 공개수사를 하겠다'며 '문제는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 주체가 서울지검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것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일차적인 목적도 있으나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란 풀이가 가능하다. 사실 그동안 서울지검은 결과적으로 경찰의 범인축소작을 추진하는 실수를 저지른 데다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으면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수사 주체로서 '부적격'이란 판정을 사제단과 대한변협 가족들로부터 받아왔던 것이다.

심임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검이 아무리 긍정하고 완비한 수사를 피 발표해도 그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고 믿어주지 않을 상황을 판단하고 수사 주체를 급히 바꾼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 서울지검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인 만큼 박군사건의 제수사를 맡을 기관은 대검밖에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대검, 박군사건 전모 발표

대검 중앙수사부는 사건인수 다음 날인 28일 박치안감이 조정위 등에게 제시한 1억 원이 든 예금통장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이날 박 姜政昌 집지안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뒤 돌려 보내는 등 수사에 급피치를 올렸다.

대검은 또 수사차수 하루만에 조정위와 민호인, 가족을 면담시켜 조정위가 심경변화를 일으키도록 해 조정위로부터 박치안감이 1억 원 통장을 보여주며 회유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모은행에서 1억 원 통장'의 원장까지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 대검중앙수사부는 29일 오전 TV 방송이 생중계 방송을 하는 가운데 수사결과를 발표, 치안본부 5차장 박치안감 대공수사 2단 5차장 유정정 5과 2계장 미인택 등 3명 이 사건 직후 고문경찰관 5명과 함께 범인은 폐조작을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 상급경찰관부 3명을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대검중앙수사부는 또 이들 3

호사선임을 취소하라고 종용했고 유경정은 3월11일부터 5월17일까지 10회에 걸쳐 조정위 등을 민회하고 5회에 걸쳐 그 가족들을 만나 사인을 은폐하도록 설득했다는 것이다. 박치안장은 지난 4월2일 신탁은 행이 춘동지지에 조정위와 정경사 등 2명의 이름으로 5천만원의 리개발신탁 장기에금 2개씩씩 2억원을 가입한 뒤 다음날의 정부교도소로 이들을 민회하기 위해 금중서류를 보여주면서 회유했다는 것이다.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현영식대검 중수부장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된 뒤 "재수사결과 물고문에 앞서 고문경찰관들이 박군을 조사할 때 가슴을 때리는 등 상당한 구타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물고문 이외의 전기고문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검 수사결과 발표는 박군 사건의 "실체"를 진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진상규명에 애쓴 대검의 노력은 시뒀만 하다는 반응도 뒤따랐다.

사제단과 대한변협은 대검발표에 대해 수사결과에 대한 진실성 정도에 대해서는 논평을 유보한 채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상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제단 김승훈신부는 "현 시점에 진위 여부를 말할 수 없으나 사제단은 앞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한변협진상조사단에 대한 활동이 보장되고 변협활동이 활성화 될 때 국민들의 불신감도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仁他대한변협회장도 대검의 수사결과발표에 대한 논평을 유보한 채 "앞으로 변협의 진상조사단이 재판과정에서 한전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가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중앙수사부의 수사가 고문경찰관 축소조작 및 은폐과정과 그 형사책임을 밝히겠다고 나서 그동안 제기돼 온 의문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문점이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해소됐다고는 할 수가 없다.

대검수사는 검찰과 검찰고위간부의 어느 선까지 조락은폐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대검은 고문과정 수사에서 물고문 이외에 폭행 등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무슨 폭행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전기고문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뒷받침할 사제부집결과서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은 박치안장이 조정위와 강경사의 입을 막기 위해 만든 "1억원 통장"의 자금출처에 대해 "2억원의 자금출처는 박치안장이 직접 관리하는 수사공작비중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2억원이란 거금이 박치안장독단으로 인출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박치안장의 2억원인출 사실을 안 또다른 상급자는 없었는가, 또 박치안장이 공작비 중 일부는 단으로 꺼내 폭로무마용으로 예금한 것은 공금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한편 대검은 담당검사가 2월27

일경조, 강두경경찰관을 민회하면서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렇다면 담당검사가 이처럼 엄청난 사실을 혼자지만 알고 상급에는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남겨 놓고 있다.

검찰은 2월27일 고문경찰관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74일 동안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5월12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조정위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74일 동안 검찰은 조정위 등을 방심하고 있을 때 경찰은 조정위 등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회유와 설득, 협박 등을 하여 은폐를 기도한 것이다. 이종교도소에서 이뤄진 "은폐 공작"은 민회일지 등으로 법무부와 한가,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닌가.

검찰에 보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데 과연 검찰은 경찰의 은폐과정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이 아닌가. 이니면 정보수집 및 수사능력이 그 정도로 무능 스도한 시술지검이 사립을 가난한 27일경 범인축소조작사실을 알았는 데도 지난 5월21일 2차발표에는 "고문경찰관 3명이 더 있는 것을 5월 초에 알았다", "은폐조작모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공식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지검은 이런 "증거"들로 보아 박군사건의 또다른 은폐조작의 방조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대검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사제단측에서도 재판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족들과 변호사들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공개를 비르고 있어 박군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박군의 아버지 박정희씨는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한번 빚을 놓고 "중철이의 무덤은 한 것이다. 한장이 없지 않는 한 중철이는 살아 있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아들의 무덤을 만들었어야 하는 진대"라며 후회했다. 박군의 아버지 말이 아니라도 박군사건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또한 박군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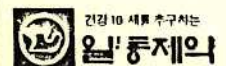
만성궤양, 재발성궤양에 큐란 1개월 단기요법...

- 1일1회 또는 2회 간편한 복용
- 단시간내에 증상소실
- 1개월 단기치료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표준소매가격 15, 60일 49, 800원
300g 30일 46, 500원



간장 10세부 추구하는
일통제약

신동아 88/2

1년만에 다시 밝혀진 朴鍾哲사건의眞相

朴鍾哲사건은 殺害직후 조작되었다

鄭 東 祐 · 黃 鎬 澤

(東亞日報社會部記者)

(東亞日報社會部記者)



黃鎬澤의 일기장 공개

6월항쟁의 불을 당기고 민주화시대의 문을 연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 朴鍾哲군 사건이 1주기를 앞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黃鎬澤박사의 일기 공개와 이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의 새로운 증언으로 다시 조명을 받으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이같은 朴군 고문치사사건의 재연은



<황적준박사>



<강민항 전치안본부장>

당시 강민창치안본부장 등 경찰 수뇌들이 朴군이 고문에 의해 숨졌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 조작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朴군 사체 부검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 황적준박사(42)의 일기장 공개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朴군은 학생운동조직인 서울대 민민투의 간부 박종운군의 소재와 관련, 지난해

1월14일 오전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중 진술을 거부하자 담당조사관 趙漢慶경위 姜鐵圭경사 등이 취조실내의 욕조에 머리를 처박고 내리누르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부위가 욕조턱에 눌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처음에는 朴군이 숨지자 경찰

은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는 비밀에 붙인 채 가족들에게만 통보, 자체내에서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15일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이날 오후 당시 姜本부장(姜本부장)이 朴군의 사인은 쇼크사라고 발표한 것. 그때 강본부장이 부하들의 보고를 토대로 밝힌 사망경위는 朴군이 「전날 물을 마셔 갈증이 난다고 말해 수사관이 갖다준 냉수를 몇 컵 마신 뒤 조사를 계속받던 중 수사관이 혐의사실을 추궁하면서 책상을 「탁」치니 갑자기 「억」하며 책상위로 쓰러져 숨졌

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망경위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사인에 대한 설명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15일 박군의 사체부검작업에 들어갔다.

황박사가 공개한 일기장에 따르면 87년 1월15일 오후 4시40분경 「치안본부장 지시니 부검팀을 급히 구성, 치안본부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부장실로 갔다가 당시 5차장 朴處源치안감의 방으로 안내됐다.

이때 박치안감은 황박사에게 「숨진 학생이 쇼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3,4회 육조에 담갔으니 익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박치안감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사체부검도 하기전에 박군이 고문에 의해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날 사체부검작업은 밤 9시부터 10시 25분까지 한양대병원 영안실에서 이 사건 수사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형사부 안상수검사 지휘하에 한양대 박동호교수 박군 삼촌 朴月吉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박사 집도로 실시됐다. 부검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이 밝혀져 박군이 고문에 의해 숨졌음이 확인되었다.

황박사는 이날 밤 11시반경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치안감의 차에 동승, 함께 치안본부로 갔다. 이때 본부장의 소집무실에는 와이셔츠 차림의 강본부장과 金又鉉1차장 劉吉鍾2차장 李敬祚3차장 朱炳德4차장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황박사는 부검소견을 정확히 설명, 박군이 고문에 의해 숨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쇼크死」로 발표토록 회유

박군 사인조작 사건의 제2라운드에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설명을 듣고난 치안본부 수뇌들은 모두가 고문치사사실은 숨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다음날인 16일 아침에 있을 본부장 기자회견에서는 사인을 명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5차장 박치안감은 모든 외상마저 삭제하도록 요구했고 4차장 朱치안감은 「서울지검 공안부와 협조가 되었으니 검찰쪽은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결국 우선 급한 불(기자회견)부터 끄고 보자는 이들의 강요에 못이겨 황박사는 기자회견 발표문의 집도의사 부검소견을 ▲외표소견으로는 외표점사상 사인이 될 만한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했고, ▲내경소견으로는 우측 폐장 하부에서 출혈반 소견이 인정되며, ▲사인은 병리조직검사 및 독물검사후 판정될 것으로 하는데 동의하고 말했다.

박군 사인조작을 위한 경찰 수뇌들의 황박사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 강요는 16일 본부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부터 시작됐다. 황박사는 그날 오후 4시반경까지 본부장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소집무실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간부들로부터 사인의 은폐 조작을 설득당했다.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4차장 주치안감이 들어와 「모든 걱정은 말고 「소신껏」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설득했으며 이날 오후 3시20분경에는 강본부장과 5차장 4차장 2차장이 합동으로 「19일까지 내게 되어 있는 부검 감정서에 사인을 심장소

크사로 해달라」는 강요와 회유를 하기도 했다.

황박사는 그러나 그날 오후에 받아본 「동아일보」에 이 사건이 크게 다루어졌으며 한양대 박교수와 박군 삼촌이 부검 때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보도되어 있어 사실이 밝혀지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정서만은 사실대로 기술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

강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반경 귀가하는 황박사와 尹重鏞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목욕이나 하라」는 명목으로 1백만원을 전달하면서 인사하고 나오는 황박사에게 「당신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황박사는 그의 일기장에 기술하고 있다.

황박사는 다음날인 17일에도 용산에 있는 「왕실」 한식집 밑실로 불려나가 정오경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박치안감, 당시 치안본부 인사교육부장이던 安喜相경무관(작고) 등으로부터 「모든 외상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감정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찰간부들의 사인 은폐조작을 위한 집요한 회유와 강요를 받으면서 황박사는 타협과 정의의 갈림길에서 외로운 번민을 하게 된다. 일기장에는 그가 당시 며칠간 밤새 잠을 못이루면서 타협과 양심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16일 밤에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이 오지 않아 잠자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밤새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친구 등 주위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국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

다고 적고 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에 따라 그는 17일밤 소장을 통해 당시 이 사건 자체수사를 지휘했던 3차장 李치안감에게 모든 사실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통보했으며 18일에는 박군이 고문치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최종 사체부검감정서를 작성, 보고했다.

그동안 집요한 은폐조작 설득작업에 나섰던 치안본부측은 결국 황박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19일 이 사실을 공식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황박사의 이번 일기장 공개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 박군 1주기를 앞두고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가 처음부터 일기장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나아가 현대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해두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 그의 일기는 박군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 당시 사체 부검의로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일기장 공개 권유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지게 마련이며 특히 진실의 공개가 의사의 양심에도 부합되는 것임을 설득하자 그는 결국 일기장을 직접 복사해주었다. 황박사는 일기를 공개하면서 자신의 결심이 그저 평범한 직업인으로서 양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 미화되거나 확대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1년전 경찰 수뇌들의 회유를 뿌리친 자신의 선택은 역사에 대한 두려움과 법의 학도로서의 직업적인 양심 때문이었고, 이번의 일기장 공개는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진실이기 때문에 공개했을 뿐 찬사를 듣고자 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박사는 이번 일과 관련, 지난 1월12일 사표를 제출했다.

안변호사의 증언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서울지검 안상수검사는 「문책인사」를 당해 春川지점으로 옮겨 근무하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전신했다. 그는 기자의 여러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1년만에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 비화를 일부 공개했다.

—박종철군의 사체부검과 부검감정서 작성때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

「15일 아침 출근해서 주임검사로 지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에 올라온 변사사건 발생보고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는 식이었다. 중앙대부속용산병원에 부검준비를 갖추어 놓으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체를 경찰병원에 옮겨 놓고 있었다. 할수없이 한양대부속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현장에 가보니 당초 집도도 한양대부속병원의 사들이 하기로 했는데 경찰조직의 일원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황적준박사팀이 와 있었다. 부검실 안팎에는 사복경찰 30여명이 몰려와 있었다. 사체에 대한 묵념을 한뒤 나는 지휘검사로

서 「의혹을 살 여지가 있으니 경찰은 입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부검실 안에 들어와 있던 10여명의 경찰관을 내보냈다. 그리고 황박사등 부검팀에게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중요사건이니 정확하게 하자」고 당부의 말을 했다. 이어 유족대표 朴月吉씨와 한양대 당직의사를 입회시켰다. 이것은 경찰조직의 일원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이 공정한 부검감정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전략」이었다. 사체는 외전상 깨끗했으나 입을 벌리자 피가 피어 있었다. 심장마비에 의한 쇼크사라면 입안에 피가 피어 있을리가 없었다. 사체를 절개해나가자 皮下出血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목부분과 가슴 부분에는 일직선형태로 피하출혈(피멍)이 있었다. 즉각 조사실 육조턱에 강하게 눌러 생긴 피멍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피하출혈 등이 발견될 때마다 유족대표와 한양대입회 의사에게 일일이 확인시켜주었다. 고문치사가 명백했다. 나는 부검이 끝난뒤 황박사를 옆방으로 불러 주임검사의 소견을 말하고 감정서도 이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못박아 놓았다. 황박사는 의사로서 훌륭한 사람이었다. 부검후 이를 동안 「심장마비」로 감정서를 쓰라는 압력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은근히 그가 엉터리 감정서를 낼까봐 걱정했다. 그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물고 가려는 압력을 뿌리치고 사실에 임각한 감정서를 작성해 보내왔다」
—수사도중 사의를 표명했던 경위는. 「나는 진즉부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개업을 할 결심을 굳혀두고 있었다. 박군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후인 2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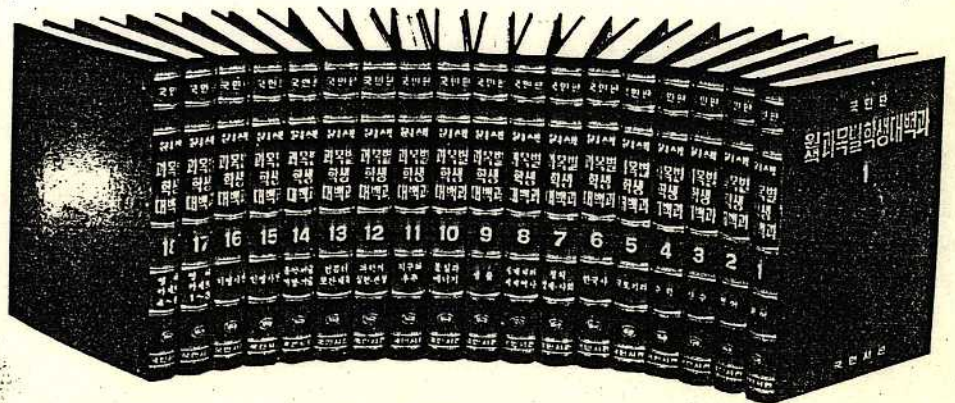
No.1



예습·복습 시험 대책에도 No.1/

내용이 알차기로 No.1입니다
자료가 많기로 No.1입니다
깔끔한 만듦새로 No.1입니다
이 No.1은 이미 발행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이야기따라집(문학공부부 추천 도서)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원색과목별학생대백과



주식회사 국민서관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7-3 전화 718-7031-7

*귀택을 방문하는 본사 상담요원에게 상담과 구입을 문의하십시오.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외부압력으로 검찰 손발 묶여

—사제단성명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했나.

「수사팀에서 하루도 늦추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수사계획서를 올려 수사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의정부교도소로가 2명의 경찰관을 만나 조사를 벌였으나 이때는 「이대로 재판받겠다」며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다. 경찰의 끈질긴 회유와 협박이 먹혀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들도 3명의 동료경찰관을 끌어들여놓고 공판을 받는 것이 형량이 나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았다. 나는 「사제단에서 이미 폭로해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하며 6시간이나 설득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 자백을 근거로 5월20일 저녁 3명의 고문경찰관을 추가로 연행, 다음날 구속한 뒤 발표했다」

—처음 수사에서 고문가담경찰관이 3명이 더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점은 명백한 수사잘못이 아닌가.

「1월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2일까지 3일동안 永登浦교도소에서 연행시간, 전기고문여부, 유품품, 고문과정을 조사했다. 조사를 진행해 나 가던 중 23일 오전에 「24일중으로 기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기소만기를 15일이나 남겨놓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이었다. 어쩔수없이 23일 오후 치안

본부대공수사2단에서 현장검증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이 수감차고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치안본부에서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상부에서도 「범행을 이미 자백했으니 범인없는 간단한 실황조사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며 현장검증 대신 실황조사만 하라고 지시했다. 실황조사때 대공수사2단에서 黃正雄경위 潘金坤 李正鎬경장을 조사했으나 신랄하게 추궁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기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추궁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들은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진술했던 것이다」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긴 것은 범인을 은폐조작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 아닌가.

「16일부터 참고인조사를 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다 17일 경찰차체수사로 결론이 났다. 물론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이었다. 당시의 권력 구조상 검찰이 독자적 기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주임검사로서 朴鍾哲군사건 1주기를 맞는 소감은.
「朴군사건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민주화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처럼 정국의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자괴심을 느낀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검찰은 건전한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애를 썼지만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이 수사를 방해했다. 당시 권력기관에서는 검찰을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수사의 보조자」 또는 「범무참모」쯤으로 취급하

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6공화국에서는 검찰권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당한 압력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것만이 법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위정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직자에게 경증 울려

—박종철군 사건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야만적인 고문행위가 사라져 한 젊은 대학생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기도는 종국에는 실패하고 말 수밖에 없으며 정부에 불신만 주게 된다는 점이다」

—유족들은 아직도 박종철군의 연행시각과 전기고문여부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는데...

「주임검사로서 그것만은 검찰발표가 맞다고 단언할 수 있다. 박군은 1월14일 아침에 연행됐다. 또 엄지와 검지사이 생긴 한점은 고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하출혈이다. 폐에서 나타난 출혈반점도 고문의 충격으로 폐혈관이 터진 것이다. 명백히 전기 고문은 없었다」

이들 두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경찰 수뇌진들이 박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자 대검중앙수사부(부장 金慶會검사장)는 지난 1월13일 오후 朴군의 부검의었던 黃박사를 참고인으로 자진 출두토록 해 철야조사한 결과, 「일기장의 내용은 거의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력과 회유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姜전치안본부장 등 경찰수뇌들을 직접 소환, 朴군 사인변경 회유여부와 직무유기 혐의 등을 집중 신문했다. 그 결과 검찰은 姜전본부장이 朴군의 부검이 끝난 지난해 1월15일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黃박사로부터 「경부압박질식사」라는 소견을 듣고도 즉시 타살혐의에 대한 수사지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소견의 변경을 요구, 발표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1월 15일밤 강민창 전치안본부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혐의로 전격구속, 수감했다.

하얏든 이번 黃박사의 일기장공개와 안변호사의 사실증언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아직도 불의와 허위의 풍토가 잔존해 있는 공직사회에 큰 경종이 되어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건강을 선물하세요.

●문의 및 상담처: 02-585-0171~2

그린스위트 선물세트

●특가: 4,000원

●특호: 23,000원
●1호: 11,000원
●2호: 8,000원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받는분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모임의 답례품이나 증정품도 세심함으로 더욱 돋보이는 선물 실속있는 것으로 고르세요. 그린스위트 선물세트.

주식 녹색십자 (신용시영부)



외인전문가 서한정(조발순은 스웨리아)

마주앙— 항상 자신있게 권하는 와인입니다.

저는 와인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특히 손님에게 그 맛을 일일이 평가해 드리는 게 바로 제가 10여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상류인사들이 주로 오시는 저의 레스토랑은 세계 각국의 유명 와인들을 거의 모두 취급하는데 그중에 마주앙은 판매의 3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마주앙은 우선 빛깔이 맑고 연합니다. 향기는 은은하면서도 상쾌합니다. 그리고 처음 와닿는 맛은 산미가 신선해서 식욕을 자극시키며, 마신 뒤의 전반적인 느낌은 가볍게 넘어가고 뒷맛이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주앙은 독일 라인벡센(RHEIN HESSEN) 지방의 오펜하이름이나 니에르스틴, 이태리의 쏘아베 그리고 스위스의 폰뎡(FENDANT) 등 일류와인들의 좋은 점이 미묘하게 복합된 느낌을 줍니다.

10년 이상 제가 취급해온 마주앙— 좋은 와인이라 항상 자신있게 권하고 우리 와인이라 편지 기분도 좋습니다.

OB가 만든 정통 순수와인
마주앙



순경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2월27일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고문 경찰관 2명과 의 면담을 통해 조작은폐 사실을 알고 나서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사표를 철회했다. 수사계획서를 몇 차례나 만들어 올려도 4월이 다가도록 「수사명령이 다음 주에 내려올 것 같다」는 언질만 있고 계속 연기를 거듭했다. 4월말경 수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5월17일 사제단 성명이 터져 나왔다」

「사제단발표 후련해」

—고문범행의 은폐 및 축소조작에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최고 특정정당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국민과 그 정당 그리고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내가 나서서 자숙하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지 않은가」 그는 정식 인터뷰때는 입을 다물었지만 언젠가의 만남에서 李海龜씨와 강민창씨가 박군사건의 조작 은폐와 깊숙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비친 적이 있다. 검찰은 범인은닉혐의로 구속한 박처원치안감 등 치안본부간부 3명도 당초에는 조작체계의 「메신저보이」에 불과하다고 판단, 불구속하려는 의견을 굽혔으나 여론에 밀려 구속으로 돌아섰다는 것.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한경경위 등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고문범행의 전모를 털어놓은 직후 수사계획서를 올렸지만 수사명령이 떨어

지지 않았다. 검찰은 감추려다 오히려 사건을 확대시키고 망신만 당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조직내에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며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기도가 시작됐다. 외부의 압력으로 검찰은 손발이 묶여버렸고 경찰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2명의 고문경찰관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작업을 진행했다. 우리는 그러한 경찰의 범인은폐기도가 무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리라고 믿었다」

—사제단에서 「고문경찰관 3명이 더 있다」는 폭탄성명을 터뜨렸을 때 검찰내부의 반응은.

「현실적으로 3명의 고문경찰관을 추가구속하기 전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조한경경위와 양진규경사에 대한 공판을 계속 미루어 왔다. 형량조정과 금전적 배려를 통해 2명의 입을 막더라도 실질적으로 1, 2심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것은 또 범법이 전에 도덕과 양심의 문제이기도 했다. 경찰의 은폐 작전에 동조할 경우 검찰과 사법부로서는 범인은닉과 직무유기의 죄책을 면할 길이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제단성명이 나왔을 때 솔직히 백만원급을 얻은 심정이었다.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검찰로서는 망신살이 뻗친 것이지만 2명의 경찰관에 대한 재판을 무한정 미룰 수도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후련한 심정이었다」

—사제단에 정확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를 알고 있는가.

「가족과 변호사들을 통해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일이 흐르면 좀더

黃迪駿박사 폭로日記 全文

1월15일 오후 4시40분경 이기찬 경정으로부터 『치안본부장 지시이니 부검팀 구성하라』는 요청을 받고, 서○○과 기△△에게 연락하였으나 모두 도착하지 않음.

오후 5시30분경 구계장 고영찬조가 온양부검이 취소당해 귀사, 이들에게 지시하여 부검팀을 구성(황석준, 구연반, 고영찬, 한한수).

오후 6시경 연구소출발, 20분후 치안본부에 도착후, 바로 본부장실로 갔으나 5차장(박치원)방으로 안내되었다. 이때 5차장은 박군이 쇼크로 사망하였을 거라고 설명하였으며 전혀 의상이 없고 3~4회 욕조에 갔었으니 익사일 것이라고 설명.

유가족이 원치 않는 부검을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경찰병원에 안치하였던 시신을 한양대에서 부검하기로 하였으며 그 병원 의사를 입회시키기로 하었다고 말하였다.

소장으로부터 저녁식사후 한양대에 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음. 치안본부 근처 다방에서 대기하는 부검팀과 경찰병원근처 설령탕집에서 저녁식사후 바로 한양대 부속병원 영안실에 도착(7시30분경). 약 한 시간동안 영안실 아래 간이매점에서 커피를 들면서 기다리다.

밤 8시경 대공과 유경정 전총경등 수사관들이 도착하였고 약 30분후 영구차에 실려 번사체가 도착. 곧 이어 한양대 박종호교수가 가운차림으로 도착, 8시40,

50분경에 안상수검사와 입회서기 도착하여 인사교환. 번사체가 부검대에 밤 9시경에 운반되고 안상수검사 지휘하에 입회자(박군 삼촌, 박교수)만 남고 모두 나갈 것을 명하였음.

약 30초간 묵념후 부검시작. 그때가 21시5분으로 부검차트에 기재. 22시25분경 부검완료후, 영안실 사무실에서 안상수검사, 나 그리고 약 5분후 구연반을 참석시켜 소견에 대하여 설명(약 40분간). 의상부위 및 사인에 대하여 그 소견을 명쾌하게 안검사에게 설명하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후 헤어짐.

5차장차에 승차후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으나 치안본부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말없이 본부에 도착(11시30분경).

본부장(와이서즈 차림) 그리고 1~4차장등과 소장이 기다리는 본부장의 소집무실에 도착후 수고했다는 격려를 받은 후 곧 부검소견을 설명. 모든 사실을 듣고 난 후 간부들사이에서 여러 의견들이 속출, 그러나 가장 큰 이슈는 16일 오전 8시30분에 있을 「본부장 기자회견」에 대한 부검소견의 요약이었음.

1월16일 0시, 이러한 상황에서 운소장과 나는 소집무실에 달린 응접실에 단독대좌하여 의상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 설명하였고, 다시 간부들 방에 들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음. 그 자리에서 5차장은 모든 의상을 삭제토록 요구. 4차장은 서울지검 공안부와 협조가 되었으니 검찰쪽은 걱정

하지 말라고 설득하였고 그의 거기에 있던 차장들도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개진. 새벽 2시가 좀 지나서 운중진소장께서 우선 아침 8시30분에 있을 기자회견부터 「불부터 끄자」라고 표현) 처리한 후 사태전전을 보아가며 처리하자고 제의. 그러나 부검감정서는 정확히 기재한다는 조건이었음(약 새벽 3시경).

본부장이하 그곳에 참석한 모든 간부들이 동의한 후 기자회견 발표문 작성에 착수. 착잡한 심정으로 부검소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동의. 발표문 작성후 새벽 3시30분경 한한수씨의 작업으로 공개할 사진을 인화하였다(아침 7시).

부검소견

번사자 : 박종철(21. 남)
 부검일시 및 장소 : 한양대 부속병원 영안실(1987. 1.15, 21 : 05~22 : 21)
 입회자 : 박종호 박○○
 外表所見 : 의표검사상 사인이 될만한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함
 內景所見 : 右肺下葉下面에서 출현반 소견을 봄

(이 발표문과 함께 편집한 사진 13장가량 공개) 그 사진에는 손등과 좌측 무릎 외측 表彼剝胞 소견 있었고 肺臟의 육안적 소견만 있었음.

아침 7시20분경 소장을 깨워 본부장실로 직행, 7시40분경에 본부장실에 도착했다. 잠옷바람의 본부장께서 그 사진을 보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후 본부장 소집무실에서 대기(오전 11시까지)

11시경 4차장이 들어오면서 「동아일보」 사회부기자가 입회자인 박교수 및 그 삼촌과 인터뷰한 사실에 대해 정보를 받

았다면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만나리 간다고 말한 후 사라짐. (4차장과 약 15분간 대화중에 모든 걱정은 말고 소신껏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설득) 14시경 받아본 「동아일보」에는 박교수 및 삼촌이 부검시 목격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보도 이때부터 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정서만은 사실대로 기술해야겠다고 결심.

본부장 소집무실 및 5차장실을 왕래하면서 대기하는 동안 각 차장들이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감정하도록 은근히 강요하기 시작. (15시경에 소집무실에서 본부장 5차장 4차장 2차장이 소장과 나에 대하여 무리한 강요를 시작, 19일까지 감정서를 「심장 쇼크사」로 보고하도록 강요 및 회유. 소장께서는 감정서 작성 시간을 길게 달라고 요청하면서 병리조직학검사 및 독물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므로 10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결론을 맺지 못하고 16시30분경 본부장께서 목욕이나 하라고 하면서 소장께 봉투(1백만원이 들어 있었음)를 전달. 인사하고 나오는데 「당신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나는 듣다.

본부장실에서 나온 후 소장과는 나의 여의도 호텔로 향했다. 17시10분경 여의도 ○○호텔에서 회동한 소장과는 나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소신껏 하겠다는 나의 표현에 소장은 난색을 표명하면서 「감정의 권한은 내게 있다」고 말하면서 알듯 모를듯한 내용의 말을 하였음. 약 20분간 대화후 나는 여의도백화점에 있는 형님사무실로 의논차 갔으나 못만 나고, 연구소로 돌아오니 신문기자들이 왔다 갔다는 보고를 받음.

19시20분경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고, 계속 기차들로부터 전화만 걸려옴. 20시20분경 김주필집에서 장병기, 장광종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22시30분경 김박사집에서 나와 한강호텔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2병을 셋이서 나누어 마신 후 23시30분경 집으로 돌아와 곧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음. 집에서는 내 사랑하는 정희가 걸으로 나타내지 않은 깊은 사랑을 내게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깊은 잠에 취하고 있었음.

1월17일 아침 6시10분경 기상, 상쾌한 마음으로 집사람과 원희 명희를 차에 태우고 스케이트장에 데려다 주면서 「정의편에 서서 감정서를 작성하겠다」고 내 가족에게 밝힘.

8시40분경 집에서 나옴. 나오기 직전 연구소 소장실로 전화하여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들러 가겠다고 연락. 9시20분 이정빈교수를 만나 이번 사건을 설명,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나에게 하여줌. 그때 예방의학교실에 안윤옥교수가 들어왔고 상황설명을 들은 후 정의의 편에 서도록 완곡한 표현을 씀.

10시10분경 서울대 법의학교실을 나오면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겠다고 자신있게 말한 후 연구소로 출발. 도중에 여의도 형님사무실에 들렀으나 못만남.

10시50분경 연구소에 도착. 곧바로 소장님실로 갔더니 기다리고 계신 듯 12시에 원효로 라돈 사우나에서 5차장 인사교육부장을 만나도록 약속이 되었다고 전하였음. 11시10분경 연구소를 출발, 원효로 라돈 사우나 커피숍으로 향하였고, 소장은 내 차 앞자리에 승차, 경인고속

영등포 기점에 왔을 때 소장에게 「감정서는 사실대로 쓰겠습니다」라고 보고하니 소장께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11시30분경 커피숍에 도착, 커피를 마시며 대화. 소장의 설득이 이때부터 시작. 12시가 조금 넘어서 5차장이 도착하고 그후 약 40분 지나 인교부장 도착. 곧 왕실이라는 한식집 밀실에서 5차장 인교부장 소장 그리고 나 모두 4명이 대좌하여 식사하면서 「의견을 개진. 인교부장(안희상경무관)의 이야기 끝자는 모든 의상은 없게 하고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감정서를 작성하도록 강요. 5차장은 말이 없고 소장은 모든 의상은 인정되지만 인만은 肺病變으로 설명하자고 제의.

16시20분까지 알가알부 대화를 하였으나 결론을 못맺고 헤어짐. 그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황이라 후련한 마음이었음. 헤어진 후 곧 여의도 사무실로 감(5시경). 형님과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후 내 차로 배제옥검사를 만나러 구반포로 직행(17시40분경).

구반포 카페에서 만나 이 문제에 대하여 상의. 검사의 입장을 전해듣고,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말만 들음. 약 30분간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여의도로 오는 도중에 형님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내 생각이 다」라고 걱정을 하여줌. 여의도 사무실에 도착한 후 곧 이대일 교수님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린 후 이 교수님택으로 직행(19시경).

19시30분경 이교수님택에 도착, 사건 전모를 말씀드린 후 사건 처리에 대하여 조언을 구함. 이교수님은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자네가 떳떳한 행동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 약 40분간 이야기한 후 21시20분경에 집에 도착. 소장에게서 전화왔고 워커힐 호텔 카테일 룸에서 10시에 만나자고 하였음. 21시55분경 카테일 룸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소장님은 도착하지 않아 맨해튼 한 잔을 마심.

약 15분후 도착한 소장은 「모든 사실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3차장께 최종보고하였다고 함(4시30분경이었다고 함). 소장이 3차장과 대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정도까지 묵인하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고 하였고, 外傷은 사실대로 기재하되 사인만 자연사쪽으로 황박사에게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함.

모든 것이 사실대로 판명되도록 분위기가 바뀌었으므로 오늘 밤은 마음껏 술이나 먹자고 하였음. 맨해튼을 세 잔째 마실때, 소장에게 워키토키로 연락이옴. 신길동에 있는 신길산업으로 황박사를 보내주고 조서받을 준비를 하고 오라는 통보였음. 22시30분경 워커힐을 떠나 23시10분경 연구소 도착.

1월18일 부검 차트와 사진을 가지고 0시 5분경에 신길산업(특수수사2대)에 도착.

이미 중앙대 부속병원 오박사와 한양대부속병원 박교수는 신문조서를 끝내고 귀가조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0시40분경부터 2반의 김기평수사관에게 참고인조서를 받기 시작하여 4시10분경에 끝남. 6시30분경에 잠자리(신문실 간이침대)에 든 후 7시50분경에 전주임이 깨워서 일어났고, 그때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음.

16시20분경 신길산업을 나와 치안본부 수사부장실로 직행하였음. 이때 신길산

업 정문에는 신문기자 7,8명이 있었고, 5,6명이 나를 에워쌌으나 곧 풀어주었음.

17시10분경 수사부장실에 도착. 19시20분경 안상수, 신창언, 이검사를 만나 부검조건에 대한 의문점을 보완.

우측폐 하엽 하면에 생긴 출혈반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

슬라이드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맺지 못하였고 20시경 법의사실 이 영보에게 연락하여 박군의 장기조직(폐, 심, 신, 비)에 대한 「플랭크톤」검사를 하도록 전화로 지시한 후, 수사부장실에서 연구소로 직행(특수2대 대장 승용차를 이용). 연구소에 도착하니 슬라이드는 이미 작성되어 보관중이었고, 박군 부검시 채취된 조직의 일부를 절편하여 플랭크톤검사를 하도록 병실3실 문옆에 보관한 후, 내 방으로 와서 병리조직에 대한 마이크로스코프 리딩을 시작.

소견은 예상했던 대로 頸部에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고, 특히 식도부위에서 출혈하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대한 신념은 확고해졌음. 놀랄만한 사실은 폐조직에서 활동성 폐결핵이 발견되었는데 부검시에는 확인되지 않는 소견이었으며 폐하엽의 하면에 발생한 출혈반은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믿었고, 더우기 「천안 안명숙」건으로 인하여 폐출혈반에 대한 발생기전을 경험하였거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약 1시간후 다시 수사본부장실로 올라가 소장, 신창언부장검사 안상수검사에게 폐에 생긴 출혈반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듯 많은 질문을 하였음. 소장님만은 수궁하면서 발생기전에 대해 좀더 정확한 설명을 하여 주었음(11시40분경). ■



「朴君사건 은폐」高位層 엄단해야

朴 元 淳

(辯護士)

박종철 군의 1주기를 이틀 앞두고 터져 나온 경찰 수뇌부의 사인 기피에 대한 움직임 수 없는 증거들은 우리에게 절망과 허무만을 안겨주고 있다. 처음 박종철군 고문 사망이 보도되었을 때 우리는 경악하였고, 그후 고문에 관여했던 범인들의 축소조작 사실이 알려졌을 때 우리는 분노하였으며, 또 다시 조작과 은폐의 엄청난 사실들이 터져나온 지금 우리는 오직 절망할 뿐이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회,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 처음에는 밝은 대낮에 신성한 공무소에서 한 젊은 대학생이 고문으로 죽어 나오더니, 또 그 고문에 참여한 경찰관을 줄여 허위 발표를 하더니, 이제 그 경찰의 수뇌부가 부검의사를 회유, 강요하여 사인을 조작하려 했고, 범치국가의 중추로서 최고, 최종의 수사기관인 검찰마저 그 조작사실을 다 알면서 상부 지시로 수사를 외면하였다니 또 내일은 어떤 사실이 밝혀질 것인가. 이 끝없는 조작과 허위의 숨바꼭질은 어디에서 끝이 날 것인가.

지난 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어느 기관을 책하기도 하였다.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기구의 신설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질없게만 생각이 들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지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제 「지나친 직무의욕」이라든가 「빨갱이를 잡다 저지른 실수」라는 변명을 들 어줄 사람은 없다. 또한 「뼈를 깎는 아픔」과 「깊은 반성」의 그 고상한 다짐과 결 의에 속아줄 국민도 없다. 오직 진실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다. 그야 말로 한 점 숨김없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 예의 「피에로」의 몸짓이 계속되고 있다. 치안본부의 총수인 본부장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박종철군의 영혼과
그 한맺힌 가족과 수없이 우롱당해 온 국민을 앞에 두고
어떻게 「경찰의 사기」 운운 할 수 있는가.

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경찰의 사기저하 등 뒷수습이 문제」라는 사기론을 또 들고 나왔고, 간부들은 「검찰 간부들의 목인과 대책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만 계속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불평조의 변명을 하고 있다. 지금은 「경찰의 사기」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국민의 사기」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박종철군의 영혼과 그 한맺힌 가족과 수없이 우롱당해 온 국민을 앞에 두고 어떻게 경찰이 희생양이란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계속되는 거짓의 몸짓

검찰도 경찰과 다르지 않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장은 「검찰이 외부의 압력으로 은폐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당시 담당검사 안상수변호사의 증언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이 없어 현재로서는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나 조작사실을 명백하게 알 았던 담당검사로서 「4,5차례나 조사 및 공소유지 전략을 담은 수사계획서를 상부에 올렸으나 외부 압력으로 수사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증언이 어찌 새로운 사실이 아닌가. 나아가 안변호사는 당초 「기소만기를 15일이나 남겨 놓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으나, 이것은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검찰의 고의적 수사 포기과 외부 압력 사실에 대해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언이 있을 수 없다.

검찰은 아직껏 축소 조작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포기하였다거나, 「외부의 압력」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존재를 인정한 바가 없다. 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검찰로서는 새로운 사실이 없을지 모르나 국민들로서는 모두가 새롭고 엄청난 사실들이다.

은폐 조작을 위하여 박종철군의 사인을 쇼크사로 해 달라고 부검의 황적준박사를 회유, 강요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치안본부장 강민창씨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은폐 강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공개를 염두에 두고 쓰는 일기들, 그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장인물 사실들을 모두 황박사가 조작했다는 것인지, 확고한 직업과 직장을 보장받고 있는 40대의 의사가 그런 조작을 하였다고 우리 국민들이 믿으란 말인가.

이번 황박사의 일기장 공개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실정법적 형사처벌은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은폐조작 회유와 강요 사실의 정확한 진상과 가담정도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형법상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형법 12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직무유기죄」(동법 제15조), 범인도피죄 등의 적용이 논란되고 있다.

누가 수사를 맡을 수 있는가

그러나 더욱 큰 관심은 축소조작 사실을 알고도 그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묵인해 주었던 검찰의 태도와 그 태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외부의 압력」에 두어지고 있다. 축소조작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하여 폭로된 이후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작년 5월 29일 발표하였던 대검 중앙수사부는 「검찰이 축소조작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5월초가 되어서였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안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발표내용이 허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검 중앙수사부마저 진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공소유지 계획까지 담은 수사계획서를 4~5차례나 올렸는데 검찰 고위간부들이 검토하지 않았을 리 없고 대검 중앙수사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름든 이러한 사실은 경찰과 검찰의 최고위간부, 실무자 다수에 대한 방대한 범위의 조사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까지 조사대상이 되지 않고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될 리가 없다. 이것은 범죄수사의 주체 또는 보조자로서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경찰이 수사의 대상, 수사의 객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실체 역시 온 국민의 주시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대책회의는 이미 이 사건에서도 검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제약하였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도 고문자 문귀동경장의 구속방침을 정해놓고 수사를 완결한 검찰에 대하여 불기소방향으로 급선회하게 한 장본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란 헌법 등 어느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기구이다. 그럼에도 이 대책회의는 부처간의 의견 교환과 협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부처에 속하는 고유권한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구체적 업무방향을 결정하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회의에 참석한 멤버는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모수사기관차장 고위총수석비서관 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헌법상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헌법기관일 뿐 아니라 범죄수사에 있어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서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

박군 고문치사 은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살살이 밝혀져야 한다.

이 그 지휘하에 있는 치안본부, 모수사기관 등의 참석자 의견에 굴복하였다는 결론이 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나쁜 헌법 위배일 뿐 아니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휘 계통을 근거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5공화국에서 일어났던 공권력의 남용과 부당한 행사가 우연히 생겼던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었음을 이제 확실히 확인하게 된다.

진실은 살살이 밝혀야 한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에 관련한 모든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의 간부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관해서도 그 참석자,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내용과 결정내용 등이 살살이 밝혀져야 한다. 어느 부분도 성역으로 방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기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찰, 검찰에게 그 조사기능을 맡길 수는 없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 검찰에 맡김으로써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꼴이 된 쓴 경험을 우리는 맛보았다. 또한 경찰, 검찰의 수사로써 실추된 공권력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가능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더욱 조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기구, 인원으로 담당케 하여야 한다.

이미 지난번 축소조작사실의 조사업무를 자임하고 나섰던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에 따른 국회내 특별위원회 등이 그러한 기구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의 통상적 체계밖에서 독립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과 고난을 거쳐 민주화의 큰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일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기회와 정리의 장을 갖는 일이다. 환부를 도려내는 일은 물론 아픔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아픔은 이겨내야 한다.

사학자 임종국씨는 「우리의 미온적인 인식의 폐단 가운데 하나가 40년전 일제시대의 일은 이제 그만 덮어두자는 대범함이다. 그만 덮어두자는 것은 역사를 암장해 버리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역사의 암장으로 초래될 것이 동일한 잘



못의 되풀이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단 말인가」라고 탄식한 바 있다.
다행히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는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서도 다스릴 것은 다스리겠다. 책임져야 할 일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처벌되어야 할 것은 마땅히 의법처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날 민주화의 흐름에 거역하였던 통치권력의 권위주의적 기구들과 그 담당자들은 개편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원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역기능은 제거되어야 한다. 검찰은 원래의 기능을 되찾아 그 추상같은 권능을 행사하고 인권보장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경찰은 의연히 치안을 담당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과 경찰이 구각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국민들의 불신 속에 남아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부천시 성고문사건, 이한열군 사건, 김근태씨 사건 등 의혹이 쌓이고 시비가 일었던 모든 사건들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 부당하게 구속, 처형되었던 모든 양심범에 대해서도 석방, 사면, 복권의 조치들이 전면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이다.

편히 잠들어야 할 「박종철 망령」

스물한 살의 꽃다운 나이에 밀폐된 취조실에서 목조에 머리를 처박힌 채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며 죽어간 박종철군은 그 시신조차 묻히지 못하게 한 짐 재가 되어 강물에 뿌려졌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도 살아 「거짓으로 점철된 이 땅」을 떠돌면서 이 시대의 민주화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엄청난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을 박군의 망령은 떠나지 못하고 다시 나타났다. 황적준박사의 일기장이 공개되고 경찰 수뇌부의 사인 은폐조작 기도가 폭로되자 치안본부 직원들 사이에는 「또 다시 박종철 망령이 나타났다」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박종철망령」은 치안본부 직원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와 가족, 이 땅의 온 국민에게도 마찬가지다. 진정 이제 「박종철 망령」이 신문지상의 요란한 기사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원히 평안의 안식처로 돌아가게 하자. 다만 「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 눈물뿐인 이 나라의 꽃」이 되게 하자. 몇번이나 죽어 우리를 각성시킨 이 민족의 수호신이 되게 하자.■

장인의
화제가 대단합니다

칼솥의 보고

잡가지미회

“주문진 유일의 참가자미회는 의사선생님들이 권하는 건강식품으로 저희 주문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국내 유일의 한치 전문점 주문진은 동해안에서 직송해온 싱싱한 한치로 고객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 다양한 한치요리를 만들어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주문진은 이밖에도 낚시로 잡은 명태(알탕), 산 생선초밥, 모듬회와 술안주류를 푸짐한 서비스와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연회석 단체예약/540-0400
본관은 24시간 영업
“알해장국
됩니다.”

동창회, 가족모임, 각종연회석 완비
주말에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
서비스 음식을 제공합니다.

<p>임구점점 송애약/540-0400</p> <p>본점: 1동9대교 *간성 *부서방 *신촌 *방곡 *고포동</p>	<p>광화문점 TEL. 732-5959</p> <p>주문진 신한문방 *세종문화회관 *교보문당</p>	<p>여의도점 TEL. 785-0665</p> <p>*대방동 *KBS빌딩 *한양대 *인도네시아대사관 *우정청가회 *한양대교 *주문진</p>	<p>천호동점 TEL. 470-0001</p> <p>영서동 *시원메스티어닝 *주문진 *천호대교 *유니버시티타운 *11월 *광화문</p>
<p>방배동점 TEL. 535-0030</p> <p>주문진 *간성 *국인로 *대방동 *여주교</p>	<p>잠실점 TEL. 418-0003</p> <p>*신사리호텔 *주문진 *역삼동 *롯데호텔도</p>	<p>이천점 TEL. (0336)2-5311</p> <p>*롯데백화점 *연경리 *주문진</p>	<p>부평점 TEL. (032)528-6060</p> <p>*관악구도교 *시원동 *한신대학교 *주문진 *대방동 *우정청가회</p>

동해안의 살아있는 싱싱한 맛
안승유통·주문진
서비스표 등록 제6492호

유사업소가 많으니 안승유통마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 마크가 있는 곳만 직영점입니다.

朴鍾哲의 22년

— 고품격, 짧게, 맹기 살타간 한 젊은 생애의 재구성 —
 趙敦 萬



카인은 누구인가?

지난 1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대 朴鍾哲(22)의 유해가루는 민족의 한이 서린 임진강에 뿌려짐으로써 그는 이 세상과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이날 임진강에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공공 일여불여 있어 박군의 유해가루는 강물에 실려서 해로 흘러간 게 아니고 세찬 바람에 휩쓸려 서울 아디 한쪽의 대기 속으로 묻혀 지금도 우리의 머리위로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날 박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뼈가루를 세찬 눈보라 속으로 한 줌 한 줌 날리며 자조적이고 역설적으로 『중철아, 잘 가거래. 이 아버지는 너무 할 말이 없대』 하고 한마디 내뱉으며 울먹었다.

이리하여 종철군은 재로 날아 가버렸다.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쉽게 잊을 수 있지만 부모는 앞서 간 자식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슬픔의 묘약은 세월이라고 했듯이 시간이 흐르면 슬픔은 쉬 잊혀지건만 중철군의 묘약은 의의의 우도

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모진 고통에 의해 숨졌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른다.

고문은 확실하 인간 존엄성의 능욕이 요 파과자이다. 고문치사의 회오리는 이제 종철군 개인을 떠나 우리 시대의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각 종교단체의 추도의식 분향소의 향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다.

朴鍾哲 신민당 인권옹호 위원장은 『朴鍾哲군의 이름은 이제 고유명사의 차원을 넘어 보통명사화되어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고 그의 죽음을 숭화시켰다. 이제 종철이는 만인의 아들로서 서서히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4백만 부산 시민은 부산의 아들이 숨졌다는 사실에 애석해 하고 숙연해져 있다. 그의 위패가 안치된 부산 사하구 피정3동 사리암(舍利庵)에서는 불경 속에 여인네들이 흐느끼고 이름 모를 사람들이 꽃다발을 두고 가거나 조의금을 놓고 가기도 한다. 신민당 제1지구 당과 부산 민주당 시민협의회에서 마련한 분향소엔 요즘도 조객들이 찾아와 무덤

외국에서도 박군에 대한 추도가 잇달아 있었다.

지난 1월 31일엔 미국 아드모아공원에서 1천여명의 재미동포가 朴鍾哲군의 추도회를 열었고, 2월 5일엔 로스앤젤레스에서 5백 대의 차량이 추도 경적을 울리면서 차량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 2일 제시 잭슨 모사는 박군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고문이 있는 나라라는 인권의 없다. 고문이 있는 나라에서 올림포스를 열 수 있겠는가 하고 고문을 비난 했다.

국내에선 지난 2월 7일 「범국민 추도대회」가 결국 봉쇄되어 명동 성당서의 「추도미사」로 변해 버렸다.

지난 1월 26일 김수환 추기경은 朴鍾哲군의 죽음에 대한 인류 최초의 살인인 「카인과 아벨의 비유」를 들어 고문의 분노하는 강론을 했다.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도문다고 대답했습니다. 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朴鍾哲군의 백일 기념 사진.

『앗사! 왜 이래, 맘을 두하게 먹고, 살
아야 지켜볼 게 아니야...』
은수양도 울었다. 아버지 正基씨는
옆방에서 담배만 피우면서 천장을 보다
가 이따금 한숨을 내쉬었다. 이모가 외
지로 동생에게 미음을 떠머이려고 하면
종철이 엄마는 도리질만 했다.
옛날에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실감났다.

30일의 좌취재부터 하기 위해 사립암

자신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

에 가 보니 종철이 부모는 오늘도 새벽
에 와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딸의 정성이 지극
해요. 아들은 꼭 누락양생할 겁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만 되면 올라와요.
잠이 없겠지요. 이모도 새벽 4시반만 되
면 절에 와서 조카 위해 사진 앞에서
독송하고 울어요. 부모가 가끔 스님한테
가서 울면서 하소연하면 스님은 좋
은 말씀 들려주기도 하지요. 관세음보
살 공양 짓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필자는 자식을 잃고 애통하던 어미를
이 절의 스님은 어떻게 위도를 하는지
궁금하고 스님께 면회를 청했다.
道輝스님(1)은 법명의 방언이라고
부를 만큼 입의 무겁고 신중했다. 특히
기관원이나 신봉자들과 만나는 길 때
우심어했다.
도승 스님의 마침 동래 구장원의 불
일이 있어 자가용을 탈 때 필자도 여차
로 차에 올랐다.
『종철의 부모가 이 절에다 위패를 안
치시칸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철의 부모는 원래 동래 범의사
에 다니시는 절도 아닌데 아마 피정의

사시는 이모가 영도에서 교통이 편리하
니까 이곳에다 위패를 모시자고 주장해
사리암으로 온 절도 아닙니다.
『언제 몇시쯤 되어 종철군의 위패가
이 절로 왔습니까?』
『화장되던 날 밤 11시쯤 되어 유가족
이 통곡하면서 들어오고 이어 경찰서장
과 시 직원, 돌바 차림의 사내들이 우
르르 비좁은 절로 들어왔어요. 종철군
이 고문에 의해 죽었다는 기사를 읽고
본도가 치달렸는데 막상 그 주인공의
위패가 저의 절로 들어오니 정말 당황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다
인연이구나, 하고 저는 허둥지둥 제를
올렸죠. 제를 마치고 나니 새벽 1시가
다 되었더군요. 그때까지 종철의 보좌
저는」당신네들을 보니 화가 난다. 나
가시오」하고 크게 고향을 쳤죠. 그 이
후로 정관보살입은 사람들과 절도 들
어 오지 않아야.
『당시 종철의 어머니와 아버지, 누
나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의 들이 아니었죠. 눈물 의 의 외
있을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뉘번
무리쳤지요. 딸과 아버지는 이성을 잃
지 않고 용감하게 버티었죠. 제를 마친

고 계십니다. 네 아들, 네 제자, 네 젊
은이, 네 국민의 한 사람인 朴鍾哲은
어디 있느냐?』
오늘의 카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카인일까.
이런 의미에서 朴군은 바로 이 시대,
이 땅의 현실에서 한 마리 속죄양의 죽
음이나 다를없다. 의로운 죽음이란 역
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마련
이다.

필자보고 '철이가?'

필자가 朴군의 집을 찾은 게 지난 1
월 28일 오후 4 시쯤이었다. 영도경찰서
청학 3 파출소 뒷쪽 청학고지대 양수장
의 2층 13평짜리 관사의 문을 열고 들
어서러니 몇 번이나 망설여지고 맘이
무거웠다. 담당함이 가슴을 짝어늘
렀다. 무거운 맘으로 종철군의 짐 문잡
이를 당겼다. 텅 빈 집에 이모 정순남
씨(61)가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있다가
벌정계 충혈된 눈으로 크게 뜨고 우을 해
냈다.
『뵈하러 왔소. 누군지 모르지만 짐

에 아무도 없으니 가소』
뭔가 화가 나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엎겨주춤 서 있는 필자에게 이모는 의
상하다는 듯이 다소성을 누그러뜨리다
나 사람대절?』을 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일 놔들! 그 순하고 착한 철이를 죽
이다니... 천벌을 받을 겁니다...』
이모는 훌쩍거리며 연방 안경을 손수
건으로 닦아냈다.
『엄마가 미처 환장을 합니까... 절에
가라고 쫓아버렸소...』 종철이가 아무리
객지에 가 있다라도 작은 설날이면 집
에 꼭 와서 찌질(전)을 부치는 엄마 옆
에 서서 고구마 찌질을 구워 먹던 모습
이 선하다며 환장을 하지요...』
사하구 피정3동 사리암으로 달려가
보니 유족들은 불공을 드리고 집으로
가고 없었다. 사리암서 공양 짓는 할머
니는 서울에 있는 아들과 약혼녀도 같
이 왔다라고 알려주었다.
다시 정중환 병을 사들고 필자가 문
을 여는 순간 『철이가?』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현관에서 서 있는
사내가 아들이 아님을 알자 그 자리에
퍼져 앉아 울기 시작했다. 종철이의 어

머니 鄭次順씨(55)였다. 그녀의 모습은
한 마디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창
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은 통통부어 있
고 머리는 거의 산발한 채 뉘을 잃고
있었다. 『실정!』이란 단어는 저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명절이 되니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종철이가 생를
거리면서 『엄마! 저 왔어요』하고 들이
오는 것만 같아 어머니는 안절부절하기
만 했다. 이런 부모에게 무얼 물어보고
취재를 하겠는가?
『어머니가 저리 울어대니 그만 나가
주세요. 앵무새처럼 말하기도 지겨워
요』
종철이의 누나 은수양(24·부산 산업
대학 불문과 4년)도 울먹이기 시작
했다. 차양은 31일 오후 5 시 청학동
D 다방서 만나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
을 했다. 구정 아침, 종철이의 집은 어
떤 상태일까? 하는 호기심과 안스러움
에 필자는 다시 가보았다.
문을 여는 순간 통곡소리가 들렸다.
『우리 철이는 꼭 살아 있다』
어머니는 울다가 한숨을 짓다가 방바
닥을 쳤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도무
지 안정을 못하고 있었다.



부산 근교에 가족이 나들이 갔을 때의朴鐵哲군(맨 오른쪽)과 어머니 鄭次順, 누나 朴銀淑(맨 왼쪽).

1월31일 오후 5시께 청학동 D다방
서 종철이의 누나 은숙양은 여전히 울
어 등을 부여오른 눈에 미소를 지으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종철이는 너무 착하고 연한 배 같아
기억할 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슬피요.
차라리 못살게 애를 먹었다라면 더 편
하게 기억이라도 날텐데요...』 종철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 명랑하고 하는 것이
귀여워 누나는 철이만 보면 웃음이 터

친구나 다름없었던 누나

어느새 차는 동래 금강공원 입구에
닿아서 필자는 종철이의 3째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차에서 내렸다.
『친구나 다름없었던 누나』
『종철이는 너무 착하고 연한 배 같아
기억할 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슬피요.
차라리 못살게 애를 먹었다라면 더 편
하게 기억이라도 날텐데요...』 종철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 명랑하고 하는 것이
귀여워 누나는 철이만 보면 웃음이 터

기회에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대를
원(대학불교인 연합회)의 학생들로부터
도 강렬한 항의 전화 같은 게 걸려오고
들던거리죠. 이렇게 볼 때 박종철군의
죽음의 요과는 의외로 볼 것 같아요.
저 역시 밤이 오주하겠습니까. 그러니
비명에 간 종철군의 영혼을 위로하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 열심히 금강경과 아미타불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차는 동래 금강공원 입구에
닿아서 필자는 종철이의 3째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차에서 내렸다.

『꽃봉오리가 피지 못하고 썩어는 것
은 비극이 아닙니까? 원혼이 구렁양생
토록 주로 금강경이나 아미타경을 봉독
하고 만약 신장도 자주 봉독합니다. 49
제는 서울 조계사에서 성대히 벌일 게
희입니다. 요즘 저한테 불경만 봉독하
고만 있을 거냐며 범어사 학인스님들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스님) 2백
여명의 사리암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것
이 있어요. 이들 젊은 학인들은 불제자
아들이 비명에 갔는데 대대적인 추도법
회를 열어야 불교인의 의지같은 걸 어떤

『종철군의 위패가 안치된 이후 절에
어떤 사람들의 주로 옵니까?』
『어머니들이 종철군의 위패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기도 하고 혼느끼기도
해요. 아마 종철이 친구들로 보이면 청
년들이 절을 하고 특히 여학생들은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하죠』
『스님은 종철군의 원혼을 위해 어떤
게 벌고 있습니까?』

고 저의 방에서 유족들을 불러앉히고
제가 차를 대접했죠. 난들 유족들의
『두 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림이 있으면 불경을 봉
송하라고 타일렸죠』
『순간 도승 스님은 그때 유족들의 참
담한 모습이 눈에 선하는지 눈을 감은
채 잠시 합장을 했다.』
『왜 착한 애가 죽어야 하는지』
『유족들이 스님 앞에서 무슨 원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님, 이 일을 어떡하면 좋으냐고
물읍니다. 저는 순간 전라도 남원에서
중학교 다닐 때 교향선배인 김주열군이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하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사
건이 생각나더군요. 어쩌면 박군의 사

건도 그때 자유당 말기 때의 김주열 선
배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착음시오, 하늘이 있는 한
이 사건은 그냥 묻혀 지나가지는 않을
거요』라고 일러주었죠. 형상에 진착하
지 말라, 모든 형상은 거짓이요 허망한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불제자는 용
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죠』
『스님께 어머니가 종철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종철이는 너무 심성이 곱고 가
난해도 자기보다 더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돌바 같은 걸 그냥 벗어주었다고
하다군요. 겨울철에 한 번씩 고향에 오
면 국제시장이나 충무동 싸구려 헌옷
가게에서 겨울 옷을 커신같이 잘 골라
내어 사다 입고 서울로 가곤 했는데,
다음에 집에 올 때 보면 씩씩하게 추
운 꼴로 와서 『그땡 그 옷 어쨌느냐』고

저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종철이의 별
명인 「정철」이라고 지었다. 「정철」은 「정철」을
친다 할 때의 종자 대신 명자로 바꾼
것이다.

「정철」의 출생 때까지 그들에게 공부
하지 않고 버티다 죽었듯이 우리가 죽
도 다 우리 종철의와 같을 겁니다」

은수양은 동생의 죽음에 대해 여자로
서 갖는 모성적인 애련함 이전의 싸늘
한 지성의 분노가 응어리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더니 나
지막하게 동생을 회고했다.

『종철이가 학생운동에 참가했다고 드라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부르던 낭만성도 많이 있었습
니다』

은수양은 아버지가 동생보다 동생이
와 두 팔로 감싸 안아 주려고 노력하
고 있었다. 은수양은 평소 동생과 남매의
도 아꼈다. 아버지 박씨는 아들 남매를
『꼭 토끼(토끼) 새끼들처럼 다정했다』
고 표현했다.

이같은 아버지의 말은 종철이가 보낸
편지 속에서도 증명된다.

지난 85년 4월 30일 종철이가 부모에
게 보낸 편지 귀절 중 「누나도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십시오. 학교 앞 서점
에 가면 생활에 보탬이 되는 좋은 책들
이 얼마든지 많으니깐…」

또 한 편지에서 종철은 누나에게 책
을 소개해 준다.

「누나야, 세계적 출판사에서 나온
『삶의 지혜』란 책을 한번 읽어봐라. 정
말 생활에 보탬이 될 거다. 편지 보낼
때는 학교로 보내라…」

『또』 주이면 초상지 뭐가 겁나

누나는 동생의 세심한 마음씀씀이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시울을 적신다고
고백했다. 어느 집안이 이럴 때 누나와
두어 살 아래인 남동생과는 닭싸움 하
듯이 자주 싸우기 일쑤인데 종철이와
누나는 싸우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가끔 종철이는 누나에게 이르스레 충고
도 했다. 종철이의 편지 중 한 편지에
이런 귀절도 있다.

「누나야, 이제 곧 시험 기간이겠구
나.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잘 받아 이
번에는 장학금 한번 받도록 해봐라」

이 편지를 보면서 누나는 동생의 주
었다는 사실의 실감나지 않는 듯 미소를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다. 유해가루를
뿌린 뒤 경찰 차에 실려 근 3시간 가
랑 서울 시내를 돌다 대공본실에 들어
갔다 나왔을 때까지 차 안에서 혹은 차
안분투 남양동 대공본실에서 경찰과 무
슨 대화가 오갔는지 일체 탐구하고
있다.

어린 밤중에 흥두께 적으로 친성의
고운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비극 앞에
일평화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과묵한 성격은 아는
사람들은 진상을 빠르든 시일내에 듣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말한다. 집안의 희망
이었던 자식을 잃고 아버지가 벨도 없
그냥 있지는 않을 거라는 추측뿐이다.

싸늘이 시인 아들의 시체

정기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분의 직업은 지방 기능직 공무원인 부
산시 수도국 산하 기계원이다(8등급
16호봉).

본부는 38만원에 각종 수당 등 합쳐
면 월 45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

일부 보도에서 정기씨의 수입이 월
20만원에 직업이 수위라고 발표된 것은

지었다.
종철이는 죽기 전 지난 1월 12일 친
화모 누나와 1분간 통화한 게 마지막
대화였다.

「누나야, 엄마한테 말해서 하숙비 좀
부쳐 안 좋래」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날도 추우니
웬만하면 집에 내려와서 공부하는 게
어때? 하숙방이 안 추워?」

「괜찮아 여기서 일어(日語)공부를 좀
해야겠어」

「그럼, 엄마와 의논해서 하숙비를 20
일게 보내도록 노력해볼게, 알겠어?」

「그럼 용돈 한 2 / 3만원만 먼저 부
쳐줄래?」

그러나 종철은 하숙비와 용돈을 받지
못하고 한숨의 재로 변해버렸다.

지난 9월 1일은 종철이의 3례였다.
이날은 아침부터 눈이 내리더니 차츰
눈보라로 바뀌면서 영하 6도의 차가운
날씨로 바뀌어 버렸다. 부산시가 모쪼
럼 흰색으로 손수해 보였다.

3제는 사리암 대웅전에서 70여명의
조객들이 흐느끼는 가운데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12시 20분에 끝났다.

제를 마치자 종철이의 어머니는 쓰러지

잘못된 거라고 은수양은 지적했다.
「그런 보도는 아마 제 생각엔 종철이
가 서울대 입학할 때 교수와 면담을 하
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우리 아버지
는 수위이고 월 20만원을 가지고 대학
생 3명씩을 공부시켜야 하므로 앞으로
학업이 계속 되어질지 모르겠다고 엄중
()을 부린 사실을 적은 기록 카드들
기자들이 보고 보도했을 겁니다」

은수양은 동생의 엄밀이 우스운 듯 힘
없이 미소를 흘렸다. 정기씨의 정년은
금년 6월 30일. 정기씨는 지난 57년 3
월 부산시 수도국 법기수원지 수문 조
절원으로 공직에 발령되던 이후 현재
영도 청학동 고지 양수장 주임이 될 때
까지 30년 세월을 명령계통의 조직사회
에서 잔뼈가 굵어진 셈이다. 30년 세월
동안 그것도 말단보부원 생활을 해 오
는 과정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심은 점
차 과묵으로 변해갔을지도 모른다.

부산시청 인사기록 카드엔 그의 본적
은 경남 양산군 정면면 율평리 223
동면마을이다. 최종 학력은 52년 5월
의 마산대학의 전신인 해인대학 법정학
부 2년 중퇴. 고등학교는 부산공업인
학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때나마 인연의



을 「도」하게 모으자...」
친지 중 어느 한분의 정기씨의 말을
받아 위로의 말을 했다.
「은수를 마시고 앉은 종철이 어머니는
연방 「도」를 흘리며서 중얼거렸다.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朴鍾哲군의 아버지 朴正基씨(58)의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
고 있으면서 좀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조개껍질처럼 꼭 다문 입은 경찰
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이

부			
학년	월	출석일수	
		실시일수	결석
1	1	233	
	2	235	
	3	220	
2	1		
	2		
	3		

학년	월	점수	
		점수	비율
1	1	100	
	2	100	
	3	100	
2	1		
	2		
	3		

학년	월	점수	비율
1	1	100	
	2	100	
	3	100	
2	1		
	2		
	3		

해광 고등학교 시험의 성취기록부

사가 되어 보냈던 꿈을 가진 길 보면 그의 심성이 섬세하고 순함을 엿볼 수도 있다. 고향 동년부락은 아이로니컬하게도 4년 전 고문으로 숨진 한일합성 김근조 의사와 같은 마을이다. 이 마을 출신 사람과 아들이 고문으로 죽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씩덕거린다. 김해 양산 지구 출신 신민당 金東岡의원이 이번 중철관 사건에 직극 나서는 동기 중엔 이같은 선거주민들의 여론도 다분히 반영된 것 같기도 하다. 正基씨는 청천벽력 같았던 14일 밤 8시께를 기억하고 있다.

이날 박군의 집에 40대 중반의 건강 한 사내가 찾아왔다. 이 사내와 나가 밤 10시께 돌아온 정기씨는 부인에게 '돈 5만원을 구하라고' 말하고 초조한 듯 자꾸만 죽음을 피웠다. 박씨는 이날 밤 10시 50분께 야간열차를 타고 낮선 사내와 같이 서울로 갔다. 기차 안에서 낮선 사내는 중철이의 죽음을 비로소 알렸다. 박씨는 눈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15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여 곧장 경찰병원 영안실로 달려가 싸늘한 아들의 시체를 본 순간 온 몸의 피가 거꾸로, 뇌로 치솟아

오르듯, 땅이 꺼지는 듯, 그 자리서 그만 쓰러질 뻔했다고 한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는 집애 전화를 하며 '엄복래 과 중철이 사건까지 전부를 알리'라고 말했다.

정모다 더 말수 적은 아버지

그로부터 박씨는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되었고 짐요하게 캐묻는 질문에서 달렸다. 이때 그는 기자들 앞에서 화가 나는 듯 자조적이고 연설적인 표현으로 대답하곤 했다. 그의 마음은 무척 슬퍼했다.

『내 아들은 못돼서 죽었소. 똑똑하면 다 못된 것 아니요?』

『내한테 중철이 말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도 아주 못된 놈이요.』

확신하고 공부 잘 하든 그렇지 않든 자랑했던 박씨가 왜 이제 '못된 놈'이라고 내뱉었을까. 이 일이나 그의 실적인 아버지의 심정을 봐. 『그리 아들의 평가부를 뿌리며 한 말이 없대요.』로 슬픔을 달렸다. 그 부정적 표현 속에 얼마나 무서운 한이 서린 말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중철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의 보증을 잘못 싣다가 서대신동 1가 60의 당시 3천만원 짜리 기와집을 처분 하려 빚을 갚고도 2년간 원금 반환을 패이는 쓰라린 경험도 있었다. 이때도 박씨는 실망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고 버스 토크 하나라도 아끼며 이를 안 팔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청학고지 양수장에 같은 날 밤에 밤아 여태껏 박씨와 같이 근무해온 후회석씨(11년 자기 주인을 이렇게 말했다. 『자세심과 인내심이 참 많아요. 아직 의박 한번 하든 걸 본적이 없소. 아마 60평생 살아도 남의 여자 손부 한번 잡아 보지 못했을 거요.』

또 한 동료는 최근의 박씨 심정을 말 해주는 듯한 말을 했다. 『평소 그 분이 술·담배 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가끔 소주 한 잔씩 합니다. 그러나 전 보다 더 말수가 적어 진 것 같아요.』

2월 3일 필자는 중철의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보기 위해 다시 영도로 갔다. 신민당 金근조·金東岡 의인과 신민당 의원인 金의현·金宗奎 의인과 신민당 의원인 金의현·金宗奎 의인과 중철의 집 앞을 방문했다. 이들의 거주 일이나 앞

은 중철이 어머니께 큰절을 하고 신민당의원들이 모금한 4백50만원을 아버지 박씨에게 전달했다. 그들의 열망으로 나가자 어머니는 그냥 드러누워 버렸다. 필자는 어머니 집에서 30분간 말이 없었어 잊기만 했다. 같이 든 술 알리고 그냥 일어서자 하는데 중철이의 머니는 필자에게 말을 건넸다. 『다 소용 없어요... 그냥 있어서 안 되겠지요? 재수를 해야겠지요...』

『우선 몸부터 회복하십시오.』 중철이의 어머니 정차순씨(55). 요즘도 미음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고 나 할까. 아들 생각이 나면 새벽같이 일어나 사리암으로 가서 아들의 위패 앞에서 앞드려 울고 불성을 부동해야 속이 좀 후련해진다고 한다.

『우리 중철이가 내가 좋아하는 李美子 가수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보면 적도 있었어요. 내 자식이지만 참 나무랄 데가 없었소...』 중철이를 어디 시원하게 주어 본적이 없어도 그 애는 늘 싱얼렁했지요...』

그녀는 이상하게 자꾸만 중철이가 살아 아저 '엄마... 하고 선드저 들어올 것만 같다고 한다. 박군의 엄마 품에 오도록



林珠善(안경 쓴 사람)이 패걸액 혼자만 주장에 대해서 가족들은 펍씩 본다. 반중을 제시하려고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중을 데리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한다. **장**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쓴 사람** 부고 당시 서울대에 도전했다. **남선** 서울에 가서 **하근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순차하** 군과 같이 생활을 했다. **월** 12만원씩 보내주는 돈을 갖고 **하근은** 포개고 포개어서 서울 재수생활을 해나갔다. **재수** 시절 **종철**은 고등과 공립수에서 고등학교 때 **3** 개 보직 **동학** 인민회의 쓴맛 같은 걸 맛보았다.

인민와 자기 **공립**의 **나**날이었다.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어디 야유회라도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권해도 **하근은** 이를 뿌리치고 **야심**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무친이나 딸친 형

누나는 **재수** 시절의 동생을 한마디로 「**지독한**」로 표현한다.

「**어미**가 **일요일** 같은 날 부산에 한번 다녀가라고 편지해도 꿈쩍도 안고 **어미**가 보고 보다고 적어보았어요. **여름방학**이 되어 친구들이 다들 바다로 산으로 캠핑을 간다는 등 **신년** 때 **종철**이 근 며칠째 저는 두한 서울의 지방 말을 지켰다.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종철**이는 7살 차이가 나는 형을 무척 따랐다. 국민학교 3학년때 형이 나뉘는 걸 따라하다 그만 팔을 다쳐 근 1개월간 붓대를 감고 다닌 적도 있었다. **종철**이는 친구들에게 형 자랑을 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종철**이에게 형으로서 영향력 안 미쳤다고는 말할 수 없죠.

형 **종부**는 동생에게 사회를 보는 눈 을 뜨게 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종철**이가 2백96점으로 서울대 인어 학과에 합격하고 **공백**기간 동안 **제가** 보던 「**전환**시대의 논리」 「**경제학** 이론」 과 **역사책** 등을 열심히 읽었죠. 아마 그때 읽었던 책의 영향이 컸던 것 같 아요.

다시 **종부**와 서울 무교동 소주집에서 만났을 때 그는 소주가 2병 가량 비어 지자 손수건으로 자꾸만 안경을 닦기 시작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아무리** 술이 되어가고 들어와도 **종철**이든 발을 씻고 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배를 피우길래 **엄마**가 아 니까 담배를 끊어라 하니까 내 담배를 들고 담배를 끊더군요. 가끔 내가 **재수생**

그는 동생이 고민으로 숨졌을 때 스킴에 잠시 이름만 알려졌을뿐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현재 서울 도봉구 D전차 해외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지만 대학시절엔 가톨릭학 생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에 크게 활약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72년 세

레를 받아 본명이 살레시오 프란치스코 이다. 서울 도봉 전철역 앞 다방에서 필자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안경** 너머 로 보내는 시선은 차갑고 날카롭고 입 은 아버지 이상으로 무거웠다.

「**종철**은 **주머니** 한구 **현신**의 **비키니** 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선 그는 또 침투

에서 오직 서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보다 못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화를 내던 그제서야 **하근은** 딱 하루 부산에 내려와서 자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 버 렸다. 당시의 **종철**이 친구 **은모**, **신모**, **김모**, **윤모**만 들으면 **지독**하게 공부했어 요. 3학년 때 가끔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피 **공**오버리더군요.라고 **하근**을 칭찬했다.

이렇게 반년이 지나가자 **형** **종**富가 제대를 했다. 그는 서강대학교 화공과 3학년 2학기에 **대학**을 하고 **종철**이와 잘의 **동**에 **인**을 **살**았다.

종철이의 유일한 형 **하** (30).

동생을 데리고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사주면 딱 석잔을 마시고 그만 마시겠다며 잔을 모아버렸소. 그 애는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애였소」

구류 5일, 3일, 집행유예 2년

86년 4월에 김시범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가락동 성동구 치소에서 풀려났을 때 중철이는 형에게 약속을 했다.

「형아, 이제 열심히 공부할 핏대. 그동안 미안했어...」

형은 동생의 성격을 아는 이상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므로 숙으로 큰 기대를 했다. 그러나 운명은 이 두 형제를 갈라놓고 말았다.

지난 84년 3월, 서울대에 입학한 차군은 1학년 2학기 과대표를 맡고부터 「운동권학생」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학기 10월 10일 4중간고사 거부 운동「때는 인문대 1년생들의 시험 거부에 앞장서기도 했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혼자만 살겠다고 몰래 슬쩍 시험을 볼려고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누



왼쪽으로부터 어머니 鄭次順, 누나 朴銀淑, 형 朴鍾富, 朴鍾哲君.

굴 위해 시험을 거부하기로 했습니까」 당시 중철이는 이렇게 배신자들(?)에게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기적 학생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정의와 학생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소용돌이가 지나면 술을 좋아하던 차군은 대포집에서 술잔을 나누면서 반대쪽 애들과도 술직한 대화를 가져 단결을 다졌다.

차군의 「운동사항을 보면 85년 5월 24일 사당동 가두 시위로 구류 5일, 85년 6월 1일 구로동 가두시위로 구류 3일, 86년 4월 11일 신당동 가두시위로 징역 10일(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8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유기정학을 받기도 했다.

과대표 활동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차군은 1학년 2학기엔 성적 불량으로 학사경고를 받았다. 2학년 1학기 때는 4.3점 만점에 3.3점과 3.7점 등 비교적 좋은 학점을 받았고 죽기 전 이번 학기엔 평균편 3.0점으로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

차군은 어떤 정신으로 학생운동을 했을까? 85년 4월 부모에게 보낸 편지

여하여 황소처럼 많은 일을 하여 동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형, 아무래도 일찍 죽을 것 같애」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 서울대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고 박중철군 추

에서 그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저는 항상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또 보람있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인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항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은 결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잘못된 정치·경제적 구조가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입니다. 인젠가는 분명히 가난한 국민들도 이께 펴고 살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누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농민들에게는 고된 노동만큼 그에 해당하는 결과물들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같더라.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손쉽게 볼 수 있는 무가적인 시골의 풍경... 흔히들 우리의 은 그것을 보고 나만적인 감상에 빠져서 소를 끌고 가는 목동의 모습 정도로 상상하지만 그 속에는 값싼 수입농산물과 수입 소 때문에 울고 농협 빚쟁이 죄정 앞에서 서럽게 서럽게 울었다.

「어두운...」으로 시작되는 노래가 퍼져나가자 장대는 더욱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오영환(당시)의 구속되는 바람에 이날 제주로 나선 서울대 총학생회 총무부장 여운철(당시) 공법학과 3년(이)과일 몇 개가 놓인 제상 앞에 꿇어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누가 우리의 친구를 죽였는가/항상 마음이 따뜻했던 친구를 누가 싸늘한 시체로 만들었느냐」고 조사를 남동무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놓아 울었다.

철이와 평소친구보다 깊은 관계를 맺어왔던 같은 과 李모양(23)은 언어학과 동료들이 합작으로 지은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조시를 호느끼며 낭독했다.

「차거운 날/한밤의 무덤조차 없이/인강 눈보라 속으로 날려진/너의 죽음을 마주하고/죽지 않고 살아남아/우리 곁에 머물/백악산 형제의 넋을 앞에 하고/우리는 입술을 깨문다/누

가 너를 맞아 왔는가/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총량)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너 철야/거짓으로 점철된 이 땅/너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문히게 할 수는 없다

이날 추모식장은 분신학생 및 구속학생 어머니들도 조사를 남동, 참석한 이들의 가슴을 뭉클케 했다.

「슬프도다/이 어인 날벼락이고/꽃다운 23살의 생명 많은 자 누구인가/영원히/우리 가슴속에 새겨/너의 죽음이/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차군이 생시에 자주 불렀던 「꽃양요」 다고 「를 불렀다.

참석 학생들 「이 어인 차군의 죽음에 애도하는 침묵부사의 울음을 보였다.

2월 21일 필자는 차군과 학생운동을 할 갈아 하고 친하게 지냈던 추모군(27)은 세대 휴학(을 만나 차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작년 여름방학 때 부사(회)부산물인 「로 서울서 공부하던 학생(모임)에서 강원도 대성리 청평호수 못미처 북한강 강변에서 MIT교육(멤버십 트레이닝)을 할 때였다. 분위기가 좋아 서로 노래를 부르는데 조용하던 「그때 잘가라 꽃양요

여 타고를 너무나 슬프고 청송맞게 부르는 바람에 분위기가 순간 숙연해져 버렸다. 그때 「왜 이래? 이 기분 좋은 날 계절이같이 선택엔덜해져 하고 추군은 종철이에게 통을 주었다. 차군은 시종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시 종철이는 추군에게 말을 걸었다.

「형 아무래도 나는 학교를 졸업 못 할 것 같아」

「이 애가 오늘따라 왜 이래」

당치가 큰 추군은 차군의 어깨를 두치며 「임마! 술이나 한잔 하고 힘좀 쉰래」

그러자 차군은 또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형 아무래도 나는 졸업 못 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주변 애들은 「종철이가 어디 모진 병에라도 걸렸나...하고 수군거렸다.

그의 비명이 지그시 들린다

이 「꽃양요」 타고 노래는 차군이 언의 학과 신입생 환영회 때도 불렀던 곡이다. 이 「꽃양요」 타고 「귀은 그의 유명을 애고라도 했단 말인가?

「그대 잘가라/꽃양요 타고/가슴에 들리는 칼로 슬픔을 차르고/어 어이 큰 눈물을/당에 뿌리고/그대 잘 가라/꽃양요 타고/그대 잘 가라/꽃양요 타고」

이러 추군은 서울대 금잔디 뜰에서 종철이가 민정당 모고위간부 아들 군과 토론했던 이야기를 했다. 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차군은 「군을 보고 「야, 남자는 세가지 부이 있어야 한다. 첫째 좋은 나라에 태어나야 하고 둘째 좋은 부모 만나야 하고 셋째 시운을 잘 타고 나야 한단 말이야. 자네는 삼박자가 맞아」

이런 말을 들은 「이런 말이야...」

추군은 「그대 잘 가라...」

우리는 종철이의 죽음이 어느 집단에 불리함을 가져왔고, 어느 집단에 이익을 가져다 준 사건으로 바시는 말한다. 여담이건 야당이건 대학교수 지식인 이진 재야 운동권이건 언론이건 일반 시민, 종교인이건 이 민족 전체의 생명과 관화가 있어야 한다. 「차군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金萬鐵一家 脱出記

하슬라 50틀짜리 배의 入港

1월 20일 오후 5시경 일본 후쿠이(福井)현 미쿠이(三國)항에 길이 26m, 폭 4m의 낮고 낮은 소형 철선(鐵船) 한 척이 흘러들어왔다. 이 배의 요부리와 후미에는 「스—단—9082」와 「청진호」란 문자가 흰 페인트로 쓰여있었고 기관실표창문에는 「김일성장군을 수령으로 하라」 당 중앙을 모음을 다해 지키자」는 붉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金萬鐵씨 가족 11명을 태운 청진호였던 것이다. 뒤에 밝혀진 것이지만 「스—단

—9082」는 북한의 자원 감독선의 불모진 일련 번호였다.

청진호는 연안이 거진 채 과도해 라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 화물선 한 척이 미쿠이항을 떠나고 있었다. 요청하는 SOS 신호가 울렸다. 청진호에서 보낸 신호였다. 화물선 선장은 청진호 구호 요청신호를 곧바로 미쿠이 해상보안부의 전담하고 잇달아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의 출항했다. 오후 6시 10분 순시선이 청진호를 발견, 출입국 관리소와 세관, 검역소가 모두 갖춰져 있는 미쿠이항 남쪽 쓰루가(敦賀)항으로 예인을 시작했다.

崔炳權 조선일보 의정부 차장대우

말미암쿠이던 표류는 망명이던 청진호가 추돌들이 3가지 시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이다.

순시선에 예인된 청진호가 쓰루가와 항(조오구(常宮) 해상)에 정박한 것은 20일 밤 10시 무렵. 청진호가 조오구해상에서 닢을 내리자마자 2척의 1천t급 대형 순시선 와까사, 노도호와 이보다 조금 작은 5백t급의 고마유키와 아시키리가 청진호 주변을 둘러쌌다. 순시선들과 함께 순시정이 물러와 청진호를 사이에 두고 4면 정계 태세에 들어갔다. 청진호가 1월 15일 새벽 1시에 돌을 틈타 청진항을 떠난 지 6일째

拷問의 眞相의 眞相의 眞相의 眞相

眞실은 지하에 묻히면 자라난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한다. 그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李 相 洙 (續上)

프랑스 드레퓌스사건의 교훈

「나는 고발한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전개된 드레퓌스사건에서 「드레퓌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분노 「에밀 졸라」가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장에 붙었던 이름이다. 그것은 모든 허망이 죽어가고 있을 때 「드레퓌스」의 개인적인 비극을 온 문명세계가 참아하는 하나의 이념운동으로 끌어올린 역사적인 외침이었다.

비공개 군법회의에서 종신유형의 판결을 내린 군부가 전범이 「드레퓌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란 화음을 얻고

서도 그들이 범한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진실발표를 거부한 채 사건을 은폐하려 들었을 때, 광기이런 여론이 군부의 편을 들고, 말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음모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도 자기 당파가 엄청난 비난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불안해 하고 있을 때, 「졸라」는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히는 포문을 열었던 것이다. 이 순교자적 외침에 힘입어 「드레퓌스」는 군부의 교활하고도 집요한 음모와 압력을 뿌리치고 두번의 재심 끝에 무죄선고를 받게 된다.

드레퓌스사건은 실로 한 사람의冤罪를 풀이주는 과정에서 프랑스 전체가 공화주의의 진동을 하리던 잠재한 드라미었다. 이 사건은 그 전개과정에서 프랑스공화정의 기

반을 다지고, 민주주의의 초보적 인권을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반공화주의적인 군부에 일대 수술을 가해 문명정치의 진통을 희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고발한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자행된 고문의 진상을 다하고, 그 고문자를 처단하려는 이 땅의 영혼의 소리이다. 이 땅에서는 드레퓌스절 드리마가 전개될 수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서는 「에밀 졸라」와 같은 용기있는 지식인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는 부친시성고문사건에서 성을 고문의 도구로 사용한 고문자의 정체가 밝혀져 처단된 것은 물론, 權양이 성을 허명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덮이 버운 공안당국의 발표가 기만적인 허위조작임이 배임하에 드러나기를 기대했다. 그리하여 다시금 이 땅에 고문이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고문자의 처벌을 요구한 제정실형은 고문법원에 시기가 되고, 대법원에 제청고된 후에도 8개월이 지나도 록 방치된 채 국민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 권양을 고문한 자는 오늘날도 무엇이 확보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권양은 1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마산형무소에 수감중이다.

拷問사건을 당각해가는 우리의 拷問經

10여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드레퓌스」의 무죄를 밝

히면 프랑스 국민의 투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채 1년도 되기 전에 권양의 피맺힌 호소를 더 이상 밝히지도 않은 채 망가의 늪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우리의 무신경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권양에 대한 성고문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다시금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고문자들이 처벌되기도 전에 박군을 고문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노동후원회사건의 成軍 등은 또 다시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장 끌로드 로레」의 말처럼 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중에서 고문처럼 가장스러운 것은 없다. 고문은 어떤 사람을 최소한의 방어수단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내동댕이치기 때문이며, 또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정신에까지 이르러 피고문자의 인격을 비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고문의 진상이 밝혀지고, 고문자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고문이 고문당하는 자의 인격 뿐만 아니라 고문하는 자의 인격도 파괴한다는 도덕적인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

첫째, 고문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 고문에 관여한 자들이 처벌되어야만 고문은 제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관여한 이상,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진정한 책임의 의 확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문에 대한 진상, 나아가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공권력의 도

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이다. 비밀이 비밀로서 존재할 뿐 공개되지 않을 경우 권력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수가 없다.

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사회는 그 규범적 주기가 준마지 않게 되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미구에는 나라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된다.

세째로, 부도덕한 정치권력을 인간화, 민주화하는 것이 고문추방을 위한 근본적 자유의 절경이라면, 역으로 고문의 진상을 밝히내 고문을 추방하는 것은 권력의 민주화, 인간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상은 때는 정치권력의 파행성에서

그러면 고문 및 권력과 유착된 인신탄압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은 대별해서 정치권력의 파행성과 국민의 주권의식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진상의 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권력의 파행성부터 먼저 보자.

인제부터인가 우리는 권력을 그냥 권력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 앞에 공자를 더 붙여 공권력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현대인의 편의주의적인 축소지향심리에도 말하느는 이러한 현상은 권력이 그동안 얼마나 특권화되어 왔는가를 물로 전라하여 공공성을 잃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권력이라는 말 대신 폭력이라는

말이, 그것도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권력 자체가 제도화된 폭력으로 변모하여 무차별하게 행사되는 사태에 대한 항의적인 표현일 것이다.

권력이 물리적인 강제력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강제력은 합법성과 정당성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그 목적이 정당성을 체유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행사되지 않을 때는 권력은 폭력으로 전락하고 만다. 폭력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행사되는 불법적인 힘을 말한다.

권력이 사물화하여 법을 지배수단으로 악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의적인 권력이 법을 대신하려 드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법대로」는 피치자인 국민에게만 해당될 뿐, 치자인 권력은 「법 없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리 한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언금, 불법감금, 무차별한 강제해산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중주의의 폐해를 넘어선 실정법과 파현상 내지 범부재현상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의미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사물화현상, 폭력화현상, 법대체현상이 심화되고 그 통제수단이 없어질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진실, 권력의 비리 등은 우선 범죄수사의 주체이며 인권옹호 직무의 담당자인 검찰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을 수사법기관으로 지칭하여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검찰의 이와 같은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검찰은 그 고유 의무를 방기한 채 권력의 시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부천시성고문사건의 경우 처음 인천지검은 수사인력을 총동원하다시피하여 연일 불철주야로 집중적인 조사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권양의 모든 주장이 진실임을 밝혀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시 코페르니쿠스적 진화를 감행하였다.

검찰이 막바지에 다른 부처에 밀려 수사결과를 바꾸었다는 소문이 공개된 바 있다.

권력의 시너로 전락한 檢察權

비양심신의 미자금 행방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하게 끝내버린 것은 차치하더라도,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검찰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검찰은 박종철사건에서 진실의 규명보다는 사건의 축소와 수습에 급급해 온 느낌이다.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기고, 수사검사를 영등포교도소로 출장보내 밀실수사를 진행한 점, 고문경찰관을 참석시키지도 않은 채 이른바 얼굴없는 현장진증을 한 점, 2월부터 공범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계속 방기해 오다가 사제단이 그 사실을 폭로하자 그때서야 서둘러 공범을 추가발포한 점 등은 모두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나 살피는 시너로 전락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인식시켰다.

박군에 대한 고문이 두 사람의 고문자에 의해 자행되었

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도 가능한 일인가. 그러한 비상식적인 경찰의 결론에 자신을 가타헤비한 검찰을 과연 경찰의 상급수사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군치사사건 후 치안본부장이 「검찰은 서기까지 합해야 3천명이지만, 경찰은 12만명이 된다」는 어이없는 망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검찰은 크고 인의이나 정비로, 권세나 위치로 보낼 것을 지휘할 수 없다. 검찰은 오로지 법과 공정으로,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양심으로지만 경찰을 지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안 등 시국사건의 경우 검찰권의 무력성은 너무나하게 드러난다. 일선 수사기관의 실지경쟁 때문인지 모르나 마구잡이로 구속송치되어 오는 공안사건을 검찰은 그 진위를 따져 보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공소유지에 차질없이 기소할 수 있는가에 급급해 하는 인상이다. 자유적인 결정권은 거의 봉쇄되어 있는 듯하다.

모처에서 송치되어 온 것이니 그쪽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푸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검찰권의 독립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허상인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2월 발표된 노동후원회사건의 진말만 보아도 검찰권의 실상이 명백히 드러난다 하겠다. 처음 신문에는 사건의 전모가 기정하게 발표되었다. 진노추사건, 마르크스·레닌주의당 사건, 혁명공체사건, 노동자해방사업연구회사전처럼 기정하게 등장하였다. 대한전임감사, 공무원, 회사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위장취업을 하여 지하노

동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운동방향을 제시하고 자금까지 후원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들이 빨리 선임되어 검찰조사시 경찰에서의 허위진술을 부정하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다른 사건에서와 달리 형식적인 증거조사와 보충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에서의 자백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검찰에서 자백을 받아야 하는데, 피의자들이 전부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자 검찰은 대학재학시 시국활동을 같이 했던 피고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대화조교로 있는 한 친구에게 학내사정을 묻고 학생운동의 현황에 관하여 다소한 사실을 그들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기소하였다. 나머지 7명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이유를 붙여 공소보류를 하도라는 기소내용이 전혀 달랐음은 물론이다.

기소되어 법정에서 성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7명을 대신한 속리양이다. 진부를 식방시켜 주변 경찰 체면이 안 시키기 때문에 나는 그 체면의 재물이 되었다. 직선제를 주장하면 자민투로 분감하고, 자민투 하면 NLPDR(속칭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로 낙인찍힌다. 나는 단지 직선제 주장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직선제 주장에 반대했다고 체면의 희파로 물렸고, 체면의 희는 당당, 모범부는 다시 NDR(소위 민족민주주의혁명)론자로 타마끔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임춘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추모군이, 11월 11일 반계요, 반독재 했더니 반파쇼였다.

김근대 씨 사건의 경우만 해도 대한민국헌법이 고문을 하고 계속 수사를 촉구하자 고문피해자 본인과의 대질조사 헌민 없이 뒤늦게 무혐의 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1949년 대통령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상공부장관을 기소한 검찰의 기개, 1964년 임하당사건에서 계속 불기소의 진을 고집한 검찰의 용기와 양심은 이디로 갓달 말인가.

"다나까"수정을 룩히드사건으로 기소하는 등 내차례나 헌적 수상이나 수포를 기소하여 내각을 무너뜨린 임춘의 김척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日法府」는 그 사명을 포기한지 오래

흔히 사법부는 국민기본권 옹호의 마지막 보루로 일컬어진다. 사건의 종국적인 규명과 판단도 사법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률개인의 손이 귀속에서 빼앗아와 친하의 공기로 환원시키지는 못할도 사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권양사건의 한 변호인은 "세계를 돌아다녀 보아도 군부와 사법부가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라치고 민주정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는 없다"라고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현주소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시국사건에 이어서의 재판기부 현상, 항소포기 현상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판을 거부하는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사법

자주·반독재운동은 반제·반파쇼운동으로, 다시 NLPDR로 둔갑하였다. 무고한 우리 동료들을 붙잡아간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이다.

만일 시국사법자들이 조금만 일찍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서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빈부하고 검찰에서 진실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었다면, 또한 법원이 조금만 양심있는 재판을 했다면 무죄가 될 사건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말」지사건 기소로 나라 망신시킨 검찰

검사의 권력에 대한 시녀화 현상은 「말」지사건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처음 「말」지사건 피고인들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였을 때 변호사들은 설마 검찰이 그와 같은 사건을 죄가 된다고 하여 기소할 수 있을까 하고 그 귀추를 주목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그리고는 변호인들이 외국기자들 증인으로 신청하자 외국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나라 망신을 시키려드느냐고 말꾸해 했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예시당초 죄가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하여 나라 망신을 시키려 했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력의 자의성을 밝히는 데문에 이르러 전혀 때없이 주지않아 버리는 검찰의 모습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검찰은 고문주장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는 커녕 고문주장을 묵살하고 은폐하려는 조짐까지 보였다.

부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우리가 왜 재판이라는 요사행위의 재물이 되어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미 그 사명을 포기한 지 오래다. 한 그릇의 죽을 얻은 대가로 장자상속권을 팔아넘긴」에서처럼, 사법부는 한갓 구구한 안일을 구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막중한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라고 사법부의 현실을 개탄한 권양사건 민론에 더 보탬말이 없다.

무너져 내린 사법부는 오구한 개정신청을 기각하면서, "문권동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히 응징되어야 미망할 행위"라고 단정해 놓고는, "문권동이 그동안 비등한 여론과 피의자실로 인하여 형벌에 못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상당하다"고 결론지은 법원의 태도속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양심성, 타협성 등을 어실히 보았다. 제정신청의 기각은 모든 진실, 모든 정의를 내리친 일적이였다.

최근에 선고된 「말」지사건을 보자. 재판이 선고되던 날 방청인들은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진부를 식방시킨 재판장에게 열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신문도 박스기사까지 싸가며, 그날의 고조된 분위기를 호의적으로 알렸다. 물론 상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건의 재판장이 보여준 노력, 용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방청인들은 우선 피고인들이 석방되어 나온다고 하니 기뻐서 박수를 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 보면 이 재판도 명백한 타협과 난물이였다. 이 사건은 단지 피고인들이 석방되느냐, 안 되느냐

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어디에 그
어야 하는가, 언론의 자유와 국가이익의 관계를 어떻게 설
정해야 하는가라는 역사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최소
한의 외교상기밀 누설죄, 국가기관 모독죄 부분은 전부 무죄
가 선고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기소된 기밀부분 중 두가지만 무죄로 인정되었
다. 언론의 현실에 대한 비판은 국가기관모독으로 유죄라
는 꼬리표가 달린 채.

이 판결을 굳이 높이 평가한다면, 이 판결이 안이한 타
협의 산물이 아니고, 한 판사, 아니 한 인간이 기대한 사
회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보여준 뼈아픈 타
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방청객 대부분이 진지, 언론인들을 비롯한 지식인들로
모여 있던 법정, 그리고 선고후의 언론보도 모두 보다 냉
정하게 선고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을까. 이 사건을 통해
몸부림치는 사법부 일각의 고뇌를 읽는다. 그러나 한편 냉
엄한 사법부의 현주소를 읽는다.

명백히 드러나는 사법부의 안일성과 타협성

사법부의 안일성, 타협성은 고문과 관련된 증거조사와
정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주민신고제에 의해 마구잡이
로 붙잡혀 가는 근로자들의 경우를 보자. 그들은 꼭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대학출
신이라는 사실, 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붙잡혀 가는 경
우가 많다.

대화인가.

경찰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 김군 자취방을 급습했다가,
이양이 그곳에 있자 이양도 진과가 있고 붙은 한 학습을 받
았다는 이유로 함께 연행해 갔다. 치유두 사람을 소개했
고, 김군과 같은 자취방에서 기기하던 조모군은 함께 기소
되자, 법정에서 울먹이며 '노동자에게는 데이트할 자유도
없느냐' 외쳤다. 고교클럽에 가서 데이트를 하던 아무인
도 없고, 집에서 담초나 나무너 데이트를 하면 문제가 되
느냐는 항변이었다.

고문당한 피의자들은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 고문당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 자체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그 고문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문자가 법정에서 불리 나오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
다.

김군 태씨 사건의 경우 진과 고문에 의한 흔적이 몸에 남
아 있어 변호인들은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
은 '경찰에서 한 자백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굳이 고문의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없

다'라서 이 경우 별다른 단서도 없이 막연한 심증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문이 필수적인 수단으로 등장
하게 된다. '수배자 누구를 아느냐, 그의 기치를 대라, 그
동안 무엇을 해 왔느냐' 완전히 투명식 수사가 고문과 함
께 진행되는 것이다. 몇날을 영장도 없이 고문수사를 벌이
다가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이제는 범죄사실을 만들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 즉 구속된 근로자
본인조차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유인
물, 책 등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등장하기도 하
고, 동료들과의 사소한 토론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
로 확대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인천지법에서 실
형을 받고 항소중인 김모군과 추모양의 얼굴이 떠오른다.
김군은 취임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심형선고
를 받았던 대학출신 근로자이고, 이양은 마이크로전자에
다닐 때 재의를 주도했다가 심형선고를 받았던 일반근로
자이다.

그들은 복역을 마치고 나와 우연히 김군 후배의 주선으
로 안양포도밭에서 만난다. 이양은 과거 회사에서의 노조
활동 경험을 말하며 이론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고 도음
을 청하고, 김군도 함께 공부해 보라고 기뻐한다. 기존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구애의 방법이 있다
고도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김군의 자취방에서 시너빈 만
났고, 김군은 이양에게 노동운동에 필요한 어리가지 지식
을 알려준다. 하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데이트이다. 소주
한잔에 서로가 겪은 노동현실을 말하고, 소망스리운 미래
를 그리는데 대화, 그것은 얼마나 순수하고 정겨운 만남이 자

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무비권을 행사하
는 등 경찰에서의 위압상태가 검찰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꼭 고문의 증거를 보전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선
정을 기각했다. 논리로서야 그럴듯하나, 공히하다. 진실을
의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구타에서 처벌 고문액의 해인이전 자백, 증거
자료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피감하게 매치하는 법리
를 화립한다면, 이 땅에서 자행되는 고문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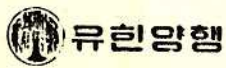
그러면 국회사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 기능
을 다하고 있는가. 국회가 정치권력의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문
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
는 국정조사권은 국민적인 여론의 성토 속에서도 작동되
어 본 일이 없다.



간장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보

간해독은 세포회복까지

해독·회복간장약
리카바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론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녀야 하는데, 오늘날 인론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견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말」지 특집호로 폭로된 「보도지침」은 그러한 의혹을 더해준다.

이와 같은 인론상황 속에서 「민중인론」이라는 이름 하에 각종의 보도물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가장 효율적인 정보전달기구인 인론이 권력의 탄압 아래 민중의 의지를 담아 낼 수 없고 진실한 사회적 정보공급을 담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민중의 진실정보요구 및 공급이라는 정보 소비목적에 의해 비제도적이고 권력에 저대하는 비법적 지인론이 탄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끝으로 국민의 주권의식은 어떠한가. 나라의 주인이여야 할 국민은 철저히 우호당한 체 임신이권을 받고 있다. 인권의 마지막 수호자는 국민 자신이다. 국민 스스로가 권력의 감시자, 고발자로 나서야 한다. 권력의 남용에 대한 끊임없는 고발정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국민의 권리의식 주권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하여는 눈물 감아주는 것이 미디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한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권력의 남용과 비리에 대한 고발은 공동선을 위한 전체의 문제

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발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 대하여는 너무 관대한 것 같다. 관용과 책임의 규명을 혼동하는 경향이 많은 듯하다. 범인은 페 조각사건으로 박치안감이 구속되던 날이다. 범호사 공실에 들렀더니 그 문제가 화제의 초점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박치안감이 구속된 사실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 과거의 대공업적을 감안하고 앞날을 생각할 때 구속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때 한 선배번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통명스럽게 던진 다음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대공이면 다냐. 잔챙이라고 마음대로 고문을 해야 하나냐」

특히 공인에 대한 평가는 엄정해야 한다. 반민특위까지 기술러 올라갈 것 없이 우리는 그동안 과거를 얼마나 쉽게 잊고 용서해 왔던가.

진상이 밝혀져야 할 사건은 너무나도 많다. 박종철군사건도 만일 외래의사의 검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의사의 용기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사제단의 용기있는 폭로가 없었다면 범인은 폐 조각부분은 과연 공개되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의 징역을 선고된 반아 북역을 미치고도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안감호치문을 받아(2년간의 보안처분이 내빈 갱신됨) 무려 9년이 넘는 기간을 감금당해 있는 시준사씨(39·서울대 법대 4년 재직·재일교포 3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가 계속 감금당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이른바 「진

항서」를 쓰지 않고 미티기 때문이라고 한다. 2년마다 심사를 거쳐 그에게 내리진 내차례의 보안처분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地下에 묻힌眞實은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한다

시준사씨는 「나의 주장」이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

「보안처분 심사위원들은 나에게 대한 동태보고서를 작성 진성 혹은 보고는 그날 집식사자들이 느낀 당에 가지 어느 때쯤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보다 훨씬 쉽게 보안처분 2년 갱신을 의결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기를 원치 않는다. 완료체계를 기술리 올라간 동태보고서가 나를 대신할 뿐이다.

그들은 「조르주 루오」의 그림과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사랑하고 「바하」나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나를 인간이 아닌, 심판을 받는 처분대상으로 삼아

있다」

그는 만 23세의 청년으로 감옥에 들어가 이제 40의 장년 아닌 노인이 되어 버렸다. 양심의 자유가 헌법상의 한 가지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한사코 진항서를 쓰기를 거부하며 9년을 감옥에서 버틴 것이다.

「에밀 졸라」의 말처럼, 진실은 지하에 묻히면 자라난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한다. 그것이 후발하는 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고문의 진상을 비롯한 모든 인권유린의 실상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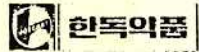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발한다」。 지금까지 우리 형제들과 문한 고문자들은, 그 고문을 뒤에서 방조하고 교사한 집단을, 그리고 그 고문을 배태케 한 부정한 권력을, 무서우시한 고문을 겪으며 결코 지지르지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아니 우리 스스로를 위해.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한가지 고발을 추가한다」。 언대 생李韓烈군을 사경으로 몰고간 경찰을, 그 지휘자를, 그 배후를. □

썰감이면
신경통은
치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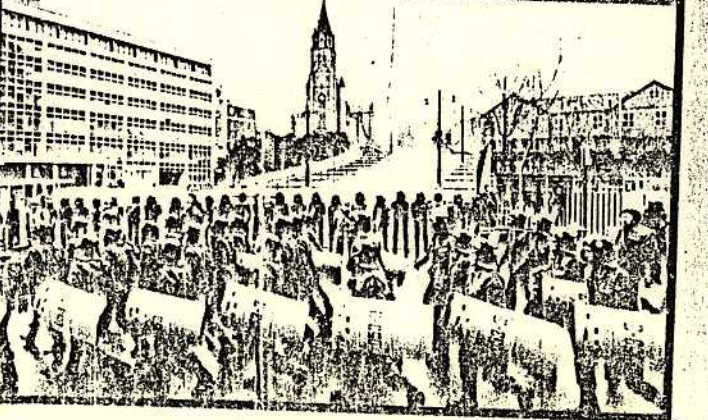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에
썰감
표준수액가: 10천 3,500원



朴鍾哲君、拷問致死에서 追悼集會까지

全 萬 吉 (東京日報社會部次長)



「나의 죽음」 「내 자식의 죽음」

경찰고문에 의한 서울대생 朴鍾哲君(21·일어학과3년)의 죽음이 단지(21)의 단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사회에 다져 레이다가 뜨고 있다.

이 21년 한 젊은이가 경찰에 끌려간 지 수십시간만에 죽음으로 빈해나온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 해주었다.

「철야, 잘 가고레이. 이 아무지는 아무 할 말 없대이」

한 줄가부로 빈한 「아들」을 기울강 물 위에 뿌리며 내뱉은 朴君 아버지의 피맺힌 절규는 엄청난 슬픔으로 모두의 가슴에 와 닿았다.

「차가운 날

현백의 무덤조차 없이

인강 눈바람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을 맴돌

대안인 「죽음」의 빛을 앞에 하고

우리는 입을 술을 깨물다

：누가 너를 앓아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서울대생들이 주최한 추모제(1월 20일)에서 같은 과 어학생학우가 흐느끼며 낭송한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는 조시는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죽음을 온 세상의 부모들은 「학군」의 죽음이 바로 「내 자식의 죽음」이다

요, 朴君 부모가 바로 자기들의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온 가족의 기대를 모으며 가난속에도 밝고 깨끗하게 자란 朴君의 죽음은 남의 집일이 아닌 바로 자기집 문제로 생각되기에 충분했다. 또 시국문제에 연행, 고문 등이 별로 생소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바로 「나의, 우리의 죽음」으로 인식되기 이르렀다.

박군에 대한 추모와 고문규탄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 사회 각계각층과 대학가로 번져갔다. 영하의 기리에선 「우리 아들 종철이 살려내라」, 대학가의 캠퍼스에선 「우리 학우 종철이 살려내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크 카뮈 철학이 귀한 일련의 조치와,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대학가 제야 종교 인권 및 여성단체들은 朴君 사인의 철저한 규명, 고문 규탄과 근절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이런 움직임은 성명서 대차로 유인물 배포 시위 농성 추모에 비미사 밀회 등으로 나타났다.

제야 48개 단체는 공동으로 2월 7일 「朴鍾哲君 국민추도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의 인천봉쇄로 열리지 못했지만, 다시 대회를 열겠다고 발표, 주목되고 있다.

박군사건은 정계에는 테풍 바로 그것이었다. 신민당은 비군사건을 재빨리 정치문제화시켜 헌정권의 정당성, 도덕성과 관련된, 이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적인 사건이라고 규정,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신민당은 관계관의 문책, 임시국회의 소집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정에 빠진 정부 여당은 마치 못해 임시국회를 열었고, 고문근절과 인권 보호 차원의 각종 대책과 개선점을 연달아 발표, 이 사건의 조기사승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론들은 인권차원에서 고문실상과 고문의 반인간성을 폭로하는 고문근



<朴鍾哲君의 초상을 지낸 뒤 어머니 정차순씨(오른쪽)가 오열하며 친척의 부축을 받고 빗딩을 나시고 있다.>

강민창치안본부장은 "쉬쉬" 하며 30여시간 감추어오다 박군의 "빈사" 사실을 뒤늦게 밝히면서, "내가 아는 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경찰관의 고문으로 박군이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일소해 부쳤다. 그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빈자 가족들에게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남기고 가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슬프다"고 말했다.

길과가 나오면 나중에 멧멧이 진모를 밟히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치안본부 대공담당 5차장 박모치안감은 책상을 "탁" 치니 박군이 "익" 하고 쓰러졌다고 "유명"한 부인설명을 했다. 강본부장은 한술 더 떠 "박군을 치유본 중앙대부속병원 의사(吳演相교수)가 박군을 치료해 주었다"고 말했다.

숙진 박군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사체부검은 1월15일 밤 9시5분부터 10시25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실시되었다. 시술지검령사부 박동호(원래 박군의 형 朴鍾富씨도 임하였으나 부검이 시작되자 차마 볼 수 없었다며 울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짐) 간호원 사직사 등이 임하였다. 16일 오전 강민창치안본부장은 부검결과 사체의 표검사에서 왼쪽 무릎에 0.6cm의 칼과상이 있었고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사이의 손등쪽에 작은 멍이 들이 있음이 확인됐으며, 사체의 내경정사결과 오른쪽 폐에서 탁구공 크기만한 출혈반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본부장은 부검한 황박사가 "출혈반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가지

첫번째 의혹, 사망장소와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까지 밝혔다. 경찰은 1차 발표 때 조사경찰관의 숫자와 신원조사 밝히지 않았다.

질기회 기사들을 실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범행은 고문대책공회회를 열고 고문감기구로 "고문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을 설립키로 했다. 박군고문치사사건은 시국문제와 관련,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던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 "정말 이래지는 안되는데..."하는 말을 지절로 터뜨리게 한 사건이었다. 반인간적 반문명적인 고문이 우리 주위에 엄존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시켜준 사건이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무게"를 세삼 일깨워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박군사건은 또 앞으로의 정국추이와 사회 진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수로 작용될 것 같다.

처음 발표부터 의혹투성이

박군을 고문치사케 한 두 고문경찰관은 1월24일 서울지검에 의해 특정범죄중대범죄위반(가혹행위)에 의한 처사(형)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두 고문경찰관에 대한 특가법 적용은 83년3월 현일합심이사 金根祖씨 고문

치사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고문가중처벌조항"이 신설된 후 3년만의 첫 적용이었다. 그러나 박군고문치사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먹구름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상식적인 추리력과 분석력을 기졌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당국에 의해 더욱 조장됐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1, 2차에 걸친 발표내용과 검찰 조사과정 등을 살펴보면 의혹이 자연 드러나게 된다. 1월15일 오후 6시 강민창치안본부장은 이날 J일보 사회면에 2단 기사로 난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死"라는 기사를 확인하는 기자들에게 "박군의 빈사사건"을 처음 공식 시인했다. 메모지 2장으로 된 치안본부장의 발표문 제목은 "조사중인 학생빈사사건"이었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사자 인적사항 - △본적 경남 양산군 정관면 월평리 223 △주소 부산 영도구 청하1동 877 △주거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6

- ② △성명 박종철(21세) 65040111093613 △학력 서울대 인문대 언어학과 3년
- ③ 가족사항 - 부 박정기(58·부산시정수도과직원, 87·6 정년) 모 정차순(54) 형 박종부(29) 매 박은숙(25)
- ④ 진과관계 - △85·5·24 가두시위 관악경찰서 구류 5일 △86·4·11 집시법 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⑤ 혐의내용 - △86·10·31 민민투인문대책으로 서울대광장에서 대모주동(4백명) △서울대 민주위사건 관련수배 박종운(사회복지학과 4년 제적)과 연계활동 및 은닉
- ⑥ 사망경위 - 1월14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하숙방에서 언행태 오진 9시 16분경 조반으로 밥과 콩나물국을 주니 까 조금 먹다가 이랫밤 술을 많이 먹어서 밤맛이 있다고 맹수나 달라고 하여 냉수를 몇컵 마신 후 10시 51분경부터 심문을 시작, 박종운군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시경 사망하였음.